Fund Flow

ETF, 주식 투자 수단의 기본이 되다

ESG & 글로벌 유동성 담당 오광영
T.02)2004-9256
oh.gwang-young@shinyoung.com

국내 ETF시장은 4월 20일 현재 410조 원대로 최근 5년 여 만에 8배 이상 성장해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 중임. 특히 올해 들어 벌써 전년도 연간 증가 규모와 비슷한 113.7조 원 증가함. 자산 유형별로 살펴보면, 주식형 ETF가 250조 원으로 전체의 60.9%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뒤를 이어 파생형, 채권형 순임. 이에 따라 국내 주식형 펀드의 경우 국내 주식형 펀드 전체 순자산 총액(215.3조 원) 중 국내 주식형 ETF (152.5조 원)가 차지하는 비중은 70.8%로 국내 주식형 (ex-ETF) 보다 두 배 이상 큼. 또한 국내 ETF : 해외 ETF = 66% : 34%이나 팬데믹 시기를 거치면서 해외 ETF 비중이 빠르게 성장함. 주식 ETF를 세부 유형별로 살펴보면 2020년 이후 업종 섹터 유형 ETF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최근 정부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허용하는 등 규제 개선 등을 통해 지원 중임. 이에 앞으로도 다양하고 트렌디 한 투자 아이디어를 담은 ETF가 다수 소개되며 ETF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함. 특히 투자자들이 관심이 높은 국내외 주식형 ETF와 채권형 ETF를 비롯해 향후 제도 개선이 기대되는 액티브 ETF의 성장이 가져올 ETF 전성시대가 기대됨.

Content

I. 2026년 3월 국내 펀드시장 결산 3

1. 전월말 대비 2.2% 역성장한 국내 펀드 시장 5
2. 국내 주식형 펀드로의 자금 흐름 6
3. 세부 유형별 펀드 설정액 증감 및 수익률 현황 7
4. 국내 주식형 펀드별 설정액 증감 및 수익률 현황 9
5. 해외 펀드 지역별 설정액 증감 및 수익률 현황 11
6. 해외 주식형 펀드별 설정액 증감 및 수익률 현황 13
7. 신규 펀드 설정 현황 및 주요 신규 공모형 펀드 16

II. ETF, 주식 투자 수단의 기본이 되다 19

1. ETF를 중심으로 사상 최대 자금이 유입된 국내 주식형 펀드 19
2. 국내 ETF 시장의 동향과 향후 전망 21

ETF, 주식 투자 수단의 기본이 되다

분석의 기본 가정
- 정부의 일반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정책 지속 강화 전망
- ETF 개선 관련 정부의 정책 지속 전망

2026년 3월말 국내 펀드시장 결산

(1) 전월말 대비 2.2% 역성장한 국내 펀드 시장

전체 시장 규모: 한 달 동안 30.8조 감소하여 전월말 대비 2.2% 역성장한 1,398.1조 기록

국내 집합투자증권(=펀드)시장 전체 설정원본(=설정액)은 3월 한 달 동안 혼합형, 부동산형, 재간접형 등의 유형이 증가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MMF, 채권형, 파생상품형 등이 대규모 감소를 보인 영향으로 총 30조 7,574억 감소하여 전월말 대비 2.2% 역성장한 약 1,398.1조를 기록했다. 2024년 5월 1,000조를 돌파하고 9개월 만인 2025년 2월 1,100조 대를 돌파했으며 이후 5개월 만인 2025년 7월 1,200조 대를 돌파했다. 이후 2026년 1월 1,300조 대를 돌파한 후 1달 만에 1,400조 대를 돌파했으나 3월 들어 감소해 1,300조 대에 머물고 있다. 한편 국내에만 투자하는 펀드는 920조, 해외 투자 펀드 규모는 478조로 국내 펀드:해외 펀드 = 65.8% : 34.2%로 전월 말 대비 국내 펀드 비중이 0.58% 축소를 기록했는데 이는 주식형과 파생상품형을 중심으로 국내 펀드가 감소했기 때문이다.

MMF 설정액 감소: 3월 들어 시중 유동성 등이 유입되면서 한 때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으나 분기말 자금 수요와 법인 자금 수요 등으로 전월말 대비 4.7조 감소한 227.2조 기록

MMF 설정액은 3월 들어 증시 급락에 따른 대기성 자금 및 시중 유동성이 대거 유입되며 한때 사상 최대 규모인 248.9조 대를 기록하는 등 성장세를 보이기도 했으나 분기말 자금 수요와 법인 자금 수요 등으로 직전 달 대비 4.7조 감소한 227.2조로 마감했다. 하지만 전년 동기 대비로는 38.2조 증가하며 20.2% 성장을 기록했다. 또한 계절성을 보이는 MMF 설정액은 올해 들어 시중 유동성이 대거 유입되어 3월말 기준 2026년 연평균 설정액 잔고는 233.3조 대로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 중이다.

부동산 펀드 설정액 증가 지속: 3월에는 1.2조 이상 증가하며 61개월 연속 증가세를 기록

부동산 펀드 설정액은 3월 한 달 동안 1.22조 증가하며 61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으며, 지난 달 26개월 만에 감소세로 전환된 재간접형 설정액은 3월 들어 1.67조 증가하며 1개월 만에 증가세로 전환되었다.

도표 1. 국내/해외 유형별 펀드 설정액 현황

구분	국내			해외			총합계
	공모	사모	소계	공모	사모	소계	
주식형	142,026	13,282	**155,308**	95,555	10,027	**105,583**	**260,890**
혼합형	15,782	13,309	**29,091**	8,086	1,495	**9,581**	**38,672**
- 혼합주식형	2,206	6,769	**8,974**	2,039	484	**2,523**	**11,497**
- 혼합채권형	13,576	6,540	**20,116**	6,047	1,011	**7,058**	**27,175**
채권형	81,460	117,839	**199,300**	6,691	5,679	**12,369**	**211,669**
MMF	154,471	70,969	**225,440**	1,799	8	**1,807**	**227,247**
파생상품	56,521	12,490	**69,010**	28,462	12,383	**40,845**	**109,855**
부동산	1,029	101,114	**102,143**	1,239	85,521	**86,760**	**188,903**
재간접	2,525	13,785	**16,310**	32,858	52,332	**85,190**	**101,500**
특별자산	11,317	59,161	**70,477**	728	95,205	**95,933**	**166,411**
기관전용사모	-	3,556	**3,556**	-	-	**-**	**3,556**
혼합자산	2,417	46,553	**48,970**	6,391	33,890	**40,281**	**89,251**
전체	**467,546**	**452,059**	**919,605**	**181,808**	**296,644**	**478,452**	**1,398,0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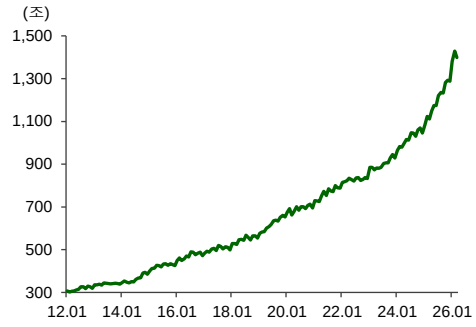
자료: 금융투자협회,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단위: 십억좌, 2026-03-31기준

도표 2. 국내/해외 유형별 펀드 설정액 전월말 대비 증감규모 및 증감률

구분	증감 규모			증감률		
	국내	해외	합계	국내	해외	합계
주식형	-15,566	-3,252	**-18,817**	-9.1%	-3.0%	**-6.7%**
혼합형	1,742	-78	**1,664**	6.4%	-0.8%	**4.5%**
- 혼합주식형	156	-45	**111**	1.8%	-1.8%	**1.0%**
- 혼합채권형	1,586	-33	**1,553**	8.6%	-0.5%	**6.1%**
채권형	-5,924	-208	**-6,132**	-2.9%	-1.7%	**-2.8%**
MMF	-4,832	108	**-4,723**	-2.1%	-	**-2.0%**
파생상품	-5,039	-1,262	**-6,301**	-6.8%	-3.0%	**-5.4%**
부동산	1,686	-465	**1,221**	1.7%	-0.5%	**0.7%**
재간접	481	1,184	**1,665**	3.0%	1.4%	**1.7%**
특별자산	132	790	**922**	0.2%	0.8%	**0.6%**
기관전용사모	-1,629	0	**-1,629**	-31.4%	-	**-31.4%**
혼합자산	397	984	**1,380**	0.8%	2.5%	**1.6%**
전체	**-28,550**	**-2,207**	**-30,757**	**-3.0%**	**-0.5%**	**-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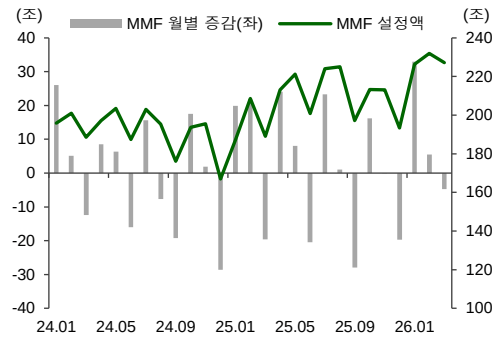
자료: 금융투자협회,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단위: 십억좌, 2026-03-31기준

도표 3. 시장 전체 설정액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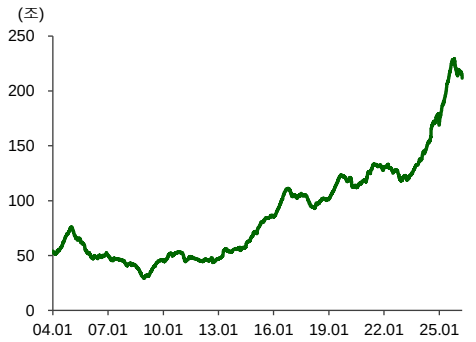
자료 : 금융투자협회,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4. MMF 설정액 및 월별 증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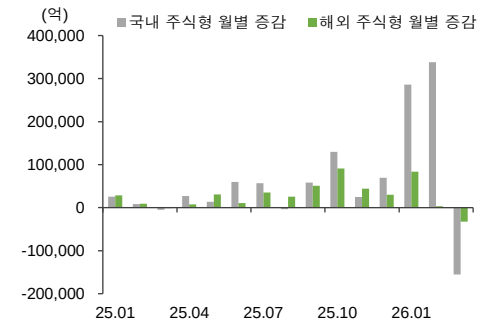
자료 : 금융투자협회,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5. 채권형 설정액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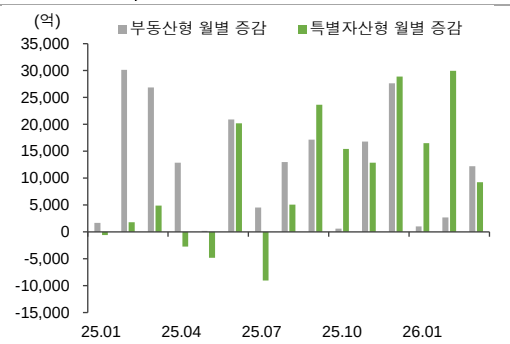
자료 : 금융투자협회,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6. 국내/해외 주식형 설정액 월간 증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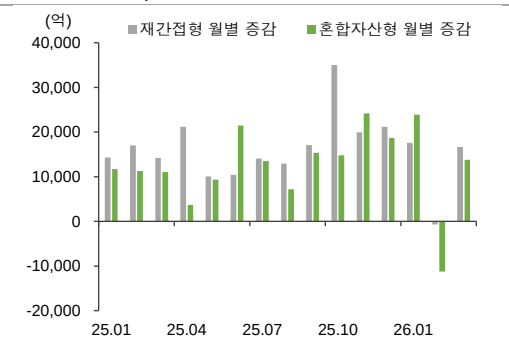
자료 : 금융투자협회,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7. 부동산형, 특별자산형 설정액 월간 증감 추이



자료 : 금융투자협회,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8. 재간접형, 혼합자산형 설정액 월간 증감 추이



자료 : 금융투자협회,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2) 국내 주식형 펀드로의 자금 흐름

국내 증시는 3월 들어 미국의 이란 공습 및 호르무즈 해협 봉쇄 장기화 우려로 이틀 연속 급락세를 보이며 시작했다. 이후 협상 기대감과 증시 낙폭이 과도하다는 인식이 확산되며 반등세를 보였다. 하지만 이란 분쟁의 중동 확산 우려와 중동 위기에 따른 유가 급등으로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며 약세를 보였다. 또한 공급망 우려 확대, 스태그플레이션 우려 등이 부각되며 증시에 부담으로 작용했다. 이후 지정학적 리스크 장기화 불확실성과 종전 기대감 등으로 급등락을 보이며 높은 변동성 장세를 보인 끝에 KOSPI는 한 달 동안 19.08% 하락하는 약세를 기록했다. 특히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를 개인의 저가 매수세가 받아주는 모습을 보였다. 이 과정에서 국내 주식형 펀드로의 자금 흐름은 대규모 자금 유입 등으로 한 달 동안 9조 8,268억 원 순유입 되어 9개월 연속 순유입을 기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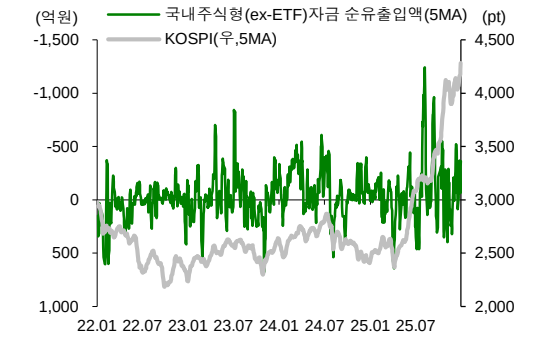
국내 주식형 ETF로의 자금 흐름은 3월 월간 9조 4,527억 원이 순유입 되며 10개월 연속 순유입 기록 →연초 이후 총 28조 2,114억 원 순유입 기록

국내 주식형 펀드로의 자금 흐름을 ETF와 국내 주식형 펀드(ex-ETF)로 나누어 살펴보면, ETF로의 자금 흐름은 3월 한 달 동안 총 9조 4,527억 원이 순유입 되며 10개월 연속 순유입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연초 이후 총 28조 2,114억 원 순유입을 기록했다.

국내 주식형 펀드(ex-ETF)로의 월간 자금 흐름: 증시 급락에 따른 저가 매수 자금 유입 등으로 3,741억 원 순유입 되며 2개월 연속 순유입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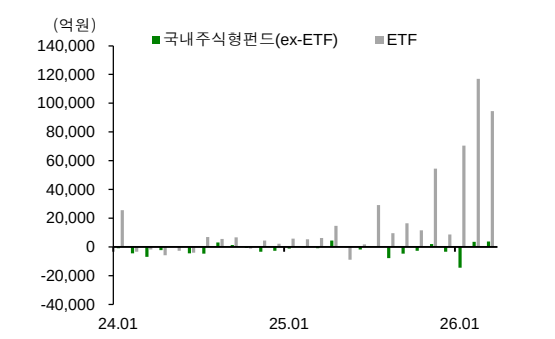
또한 3월 국내 주식형 펀드(ex-ETF)로의 월간 자금 흐름은 증시 급락에 따른 저가 매수 영향으로 3,741억 원이 순유입 되며 2개월 연속 순유입을 기록했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특히 공모 펀드를 중심으로 자금이 유입되었는데 공모형은 8,802억 원의 순유입을 기록한 반면 사모형은 5,061억 원 순유출을 기록하며 2개월 연속 상반된 흐름을 보였다.

도표 9. 국내 주식형 펀드(ex-ETF)자금 흐름 추이



자료 : 금융투자협회,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10. 국내 주식형 펀드 월별 자금 순유출입액



자료 : 금융투자협회,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3) 세부 유형별 펀드 설정액 증감 및 수익률 현황

인덱스주식기타 유형 9개월 연속 증가세: 증시 급락에 따른 코스피 200 레버리지 펀드 저가매수세 유입, 반도체 집중투자 펀드, 전력핵심설비 및 원자력 투자 펀드, 커버드콜 펀드 등으로 대규모 자금이 유입되어 설정액이 3.6조 증가하여 9개월 연속 증가세를 기록함

공모형 국내 투자 펀드 설정액 월간 증감을 살펴보면, 국내 주식형은 증시 급락 속에 인덱스형을 중심으로 투자 자금 유입이 활발하게 나타나며 9개월 연속 증가세를 기록했다. 설정액이 가장 많이 증가한 유형은 국내 인덱스주식형 펀드 중 인덱스주식기타 유형으로 증시 급락에 따른 코스피 200레버리지 펀드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고 반도체 집중 투자 펀드 또는 전력핵심설비 및 원자력 투자 펀드, 커버드콜 전략의 펀드 등으로 대규모 자금이 유입되어 한 달 동안 3조 6,141억 증가하며 9개월 연속 증가세를 기록했다. 또한 인덱스주식섹터 유형은 일부 반도체, 증권주, 2차전지, IT, 건설 업종 지수 추종 펀드 등으로 자금이 유입되어 1조 6,093억 증가하며 1개월 만에 증가세로 전환됐다. 또한 인덱스주식코스피200유형도 한 달 동안 6,989억 증가하며 10개월 연속 증가세를 기록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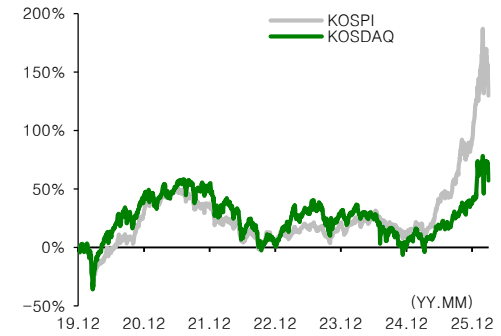
국내 액티브주식형 중 액티브주식일반 유형은 일부 소부장 펀드와 밸류업 펀드, 일부 성장주 펀드 등으로 자금이 유입되면서 한 달 동안 4,019억 증가하여 2개월 연속 증가세를 기록함

국내 액티브주식형 펀드 중 액티브주식일반 유형은 소부장 펀드와 밸류업 펀드, 일부 성장주 펀드 등으로 자금이 유입되어 한 달 동안 4,019억 증가하며 2개월 연속 증가세를 기록했다. 또한 액티브주식배당 유형도 정부의 주주환원 강화 정책 기조 속 주총 시즌을 보내면서 관심의 증가로 한 달 동안 2,386억이 증가해 2개월 연속 증가세를 기록했다. 또한 액티브주식섹터 유형은 일부 테크 섹터 펀드와 방산조선 펀드 등으로 자금이 유입되어 757억 증가하며 2개월 연속 증가세를 기록했다. 또한 액티브주식중소형 유형은 코스닥 시장에 대한 관심 증가 등으로 자금이 유입되어 287억 증가해 2개월 연속 증가세를 기록했다. 반면 액티브주식테마 유형은 일부 ESG 펀드와 삼성 그룹주 펀드 등에서 자금이 유출되어 35억 감소하며 2개월 만에 감소세로 전환됐다.

공모형 국내 채권형 펀드 설정액은 이란 전쟁과 유가 급등, 채권 시장의 부진 영향으로 국공채권 유형을 제외한 대부분의 유형에서 자금이 유출되어 한 달 동안 약 1.3조 감소하며 2개월 연속 감소세를 기록했다. 한편, 국공채권 유형은 안전자산 선호 현상 등으로 자금이 유입되어 3,362억 증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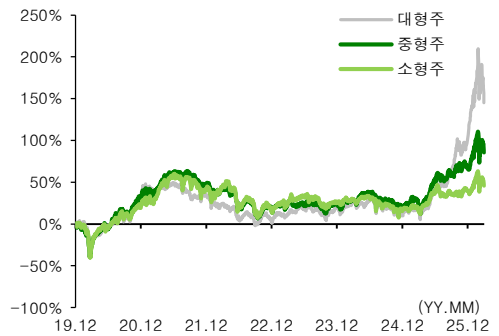
유형별 월간 수익률을 살펴보면,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로 증시가 급락세를 보인 가운데 코스피 중소형주와 코스닥 시장이 상대적으로 선방한 영향으로 관련주 비중이 높은 액티브중소형 펀드가 선방했다.

도표 11. KOSPI VS KOSDAQ 누적수익률 추이



자료 : Bloomberg,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2019.12.30 = 0)

도표 12. KOSPI 대형주 VS 중형주 VS 소형주



자료 : Bloomberg,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2019.12.30 = 0)

도표 13. 국내 펀드 세부 유형별 설정액 및 수익률

대유형	소유형	설정액(억)			수익률(%)					
		260331	260227	증감	1M	3M	6M	1Y	2Y	3Y
국내 주식형	액티브주식일반	88,834	84,814	4,019	-13.41	25.63	48.52	102.31	93.96	122.23
	액티브주식중소형	8,448	8,161	287	-7.36	21.65	34.21	82.24	73.23	96.13
	액티브주식배당	28,847	26,461	2,386	-12.68	22.95	44.11	87.97	78.13	113.59
	액티브주식섹터	8,790	8,033	757	-10.84	31.30	68.19	139.36	85.25	127.41
	액티브주식테마	9,825	9,860	-35	-15.10	25.37	52.94	105.29	87.73	115.68
	인덱스주식코스피200	132,073	125,084	6,989	-16.07	29.14	64.91	129.52	115.12	158.55
	인덱스주식KRX300	740	714	27	-15.57	28.95	63.02	125.02	106.48	152.63
	인덱스주식섹터	90,120	74,026	16,093	-12.99	24.70	45.99	74.84	35.81	46.87
	인덱스주식기타	453,287	417,146	36,141	-16.64	29.61	58.94	125.41	88.20	129.12
국내 혼합형	자산배분	5,157	4,924	234	-8.15	10.65	22.22	46.63	43.10	60.22
	주식혼합	29,996	28,770	1,227	-8.32	13.89	27.70	53.21	50.38	67.37
	채권혼합	191,602	173,467	18,136	-3.65	4.53	8.43	16.30	19.09	26.00
	채권알파	3,097	3,291	-193	-0.75	1.12	2.02	4.90	8.81	15.16
	하이일드혼합	13,974	13,354	620	0.17	1.11	2.60	5.47	10.60	20.05
국내 채권형	국공채권	104,543	101,181	3,362	-2.44	-2.75	-5.08	-4.78	1.97	5.86
	회사채권	35,779	40,253	-4,474	-1.00	-0.56	-0.72	1.37	7.10	12.93
	일반채권	277,675	280,744	-3,070	-1.80	-1.67	-2.91	-1.83	4.53	8.98
	초단기채권	532,754	541,450	-8,696	0.18	0.68	1.29	2.75	6.47	10.63

자료 : Fn-guide,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주: 국내 공모형 펀드 기준, 2026-03-31기준

(4) 국내 주식형 펀드별 설정액 증감 및 수익률 현황

일부 소부장 펀드로 대규모 자금이 유입되어 월간 자금 흐름 증감 상위 기록

국내 주식형 펀드(ex-ETF)의 펀드별 월간 자금 흐름 증감을 살펴보면, NH-Amundi필승코리아증권투자신탁[주식], 미래에셋코어테크증권자투자신탁(주식) 등의 일부 소부장 펀드가 월간 자금 흐름 증감 상위를 기록했다. 또한 NH-Amundi코리아2배레버리지증권투자신탁[주식-파생형], 교보악사파워인덱스증권투자신탁 1(주식-파생형)(운용), KB스타코스닥150인덱스증권자투자신탁(주식-파생형)(운용) 등의 일부 레버리지 펀드와 인덱스 펀드도 월간 자금 흐름 증감 상위를 기록했다. 또한 KB스타코리아밸류업인덱스증권자투자신탁(주식) (운용), KB코리아밸류업액티브증권자투자신탁(주식)(운용) 등의 밸류업 펀드도 월간 자금 흐름 증감 상위를 기록했다.

일부 인덱스 펀드가 증시 약세에 따른 투자자들의 리스크 관리 강화로 환매가 증가하여 월간 자금 흐름 증감 하위 기록

반면 자금 흐름이 감소한 펀드를 살펴보면, 신한코리아인덱스증권투자신탁[주식-파생형](종류), 대신인덱스밸류증권투자신탁[주식](운용) 등의 일부 인덱스 펀드가 월간 자금 흐름 증감 하위를 기록했다. 또한 신영마라톤증권자투자신탁(주식), 한국밸류10년투자배당증권자투자신탁(주식)모 등의 일부 가치주 펀드와 배당주 펀드도 월간 자금 흐름 증감 하위를 기록했다. 또한 현대인베스트먼트하이킥중소형증권자투자신탁1(주식), 신영마라톤중소형주증권자투자신탁(주식)운용 등의 일부 중소형주 펀드도 월간 자금 흐름 증감 하위를 기록했다. 또한 마이다스책임투자증권투자신탁(주식)(운용)과 같은 ESG 펀드도 월간 자금 흐름 증감 하위를 기록했다.

도표 14. 국내 주식형 펀드 월간 자금 흐름 증감 상위 Top 10

펀드명	설정일	설정액	순자산	증감	1M	6M	1Y
NH-Amundi필승코리아증권투자신탁[주식]	2019-08-14	3,545	18,757	2,778	-11.08	80.48	166.35
미래에셋코어테크증권자투자신탁(주식)	2019-10-21	4,064	15,140	1,850	-11.62	80.37	167.00
NH-Amundi코리아2배레버리지증권투자신탁[주식-파생형]	2013-04-22	2,002	10,854	1,124	-34.57	142.29	353.37
교보악사파워인덱스증권투자신탁 1(주식-파생형)(운용)	2006-03-15	4,859	14,872	692	-15.93	66.28	132.34
KB스타코리아밸류업인덱스증권자투자신탁(주식)(운용)	2024-11-05	903	2,122	665	-14.97	68.23	132.05
KB코리아밸류업액티브증권자투자신탁(주식)(운용)	2024-11-05	587	1,418	614	-15.22	69.33	137.42
디에스Maestro증권자투자신탁[주식]	2023-07-12	1,034	2,646	498	-10.12	63.42	153.45
한국투자인덱스플러스증권투자신탁 1(주식-파생형)	2006-10-23	346	1,075	488	-16.06	66.36	132.70
하나파이팅코리아증권투자신탁[주식]	2024-12-26	1,113	2,892	464	-13.09	63.37	147.10
KB스타코스닥150인덱스증권자투자신탁(주식-파생형)(운용)	2016-05-17	2,081	4,514	446	-8.92	36.02	68.70

단위: 억, %, 2026-03-31 기준, 결산재투자 제외
자료: 국내 공모형 펀드 기준, 100억 이상 운용 펀드/모펀드 대상, ETF제외, Fn-guide,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15. 국내 주식형 펀드 월간 자금 흐름 증감 하위 Top 10

펀드명	설정일	설정액	순자산	증감	1M	6M	1Y
신한코리아인덱스증권투자신탁[주식-파생형](종류)	2022-05-11	1,228	2,702	-594	-16.22	65.44	131.02
대신인덱스밸류증권투자신탁[주식](운용)	2018-10-23	1,361	4,472	-304	-15.90	64.12	130.68
대신KOSPI200인덱스증권자투자신탁[주식](운용)	2007-11-28	584	2,088	-211	-15.78	61.98	127.19
신영마라톤증권자투자신탁(주식)	2005-11-30	3,143	6,917	-182	-12.03	48.42	93.85
한국밸류10년투자배당증권자투자신탁(주식)모	2013-12-24	901	2,195	-154	-14.14	38.09	77.36
유리부스트업코리아증권자투자신탁[주식]_운용	2020-03-23	42	98	-125	-13.57	64.23	120.34
현대인베스트먼트하이킥중소형증권자투자신탁 1(주식)	2011-04-05	146	288	-121	-10.68	31.82	94.92
마이다스책임투자증권투자신탁(주식)(운용)	2009-04-21	707	6,288	-116	-14.76	52.06	106.28
신영마라톤중소형주증권자투자신탁(주식)운용	2017-07-24	504	835	-107	-6.70	34.90	68.95
KB밸류포커스증권자투자신탁(주식)(운용)	2009-11-10	1,368	2,758	-101	-13.03	40.08	116.97

단위: 억, %, 2026-03-31 기준, 결산재투자 제외
자료: 국내 공모형 펀드 기준, 100억 이상 운용 펀드/ 모펀드 대상, ETF제외, Fn-guide,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일부 중소형주 펀드가 종목 선정 효과 등으로 강세를 보이며 월간 수익률 상위 기록

펀드별로 월간 성과를 살펴보면, 한국투자중소밸류증권자투자신탁(주식), 우리Best중소형증권자투자신탁[주식](운용), 우리중소형고배당증권자투자신탁 1(주식) 등의 일부 중소형주 펀드는 증시 급락에도 불구하고 종목 선정 효과 등으로 양의 성과를 보이며 월간 수익률 상위에 올랐다. 이외에도 웰컴공모주코스닥벤처기업증권투자신탁[주식혼합-파생형], 현대강소기업증권자투자신탁 1[주식], 키움작은거인증권자투자신탁 1[주식] 등의 중소형주 펀드는 상대적으로 선방한 코스피 중소형주와 코스닥 영향으로 월간 수익률 상위에 올랐다. 또한 미래에셋한국헬스케어증권자투자신탁 1(주식), 미래에셋클린테크증권자투자신탁(주식) 등의 헬스케어 펀드와 클린 테크 펀드도 선방하며 월간 수익률 상위에 올랐다.

일부 레버리지 펀드가 증시의 부진 영향으로 월간 수익률 하위 기록

반면 한화2.2배레버리지인덱스증권투자신탁(주식-파생재간접형), NH-Amundi코리아2배레버리지증권투자신탁[주식-파생형], KB스타코리아레버리지2.0증권투자신탁(주식-파생형)(운용), NH-Amundi코스닥2배레버리지증권투자신탁[주식-파생형], 한국투자코스닥두배로증권투자신탁(주식-재간접파생형) 등의 레버리지 펀드는 기초 지수인 코스피200과 코스닥150의 부진 영향으로 월간 수익률 하위를 기록했다. 또한 미래에셋베스트펀드컬렉션증권자투자신탁1(주식-재간접형), 한국투자다시성장코리아증권자투자신탁1(주식)(모) 등의 일부 펀드도 증시 부진에 월간 수익률 하위를 기록했다.

도표 16. 국내 주식형 펀드 월간 수익률 상위 Top 10

펀드명	설정일	설정액	1M	3M	6M	1Y	3Y
한국투자중소밸류증권자투자신탁(주식)	2007-07-23	298	3.03	15.22	15.76	27.85	76.42
우리Best중소형증권자투자신탁[주식](운용)	2005-12-01	169	1.45	20.10	39.26	101.07	85.16
우리중소형고배당증권자투자신탁 1(주식)	2005-03-09	454	0.28	18.81	36.15	85.52	98.69
웰컴공모주코스닥벤처기업증권투자신탁[주식혼합-파생형]	2018-04-05	242	-0.30	3.49	12.27	24.71	46.31
현대강소기업증권자투자신탁 1[주식]	2011-05-23	215	-1.07	52.95	62.87	96.31	78.27
키움작은거인증권자투자신탁 1[주식]	2011-04-01	106	-1.92	41.77	65.22	112.01	127.48
미래에셋한국헬스케어증권자투자신탁 1(주식)	2013-01-30	226	-2.79	10.09	39.52	85.40	140.39
미래에셋클린테크증권자투자신탁(주식)	2021-02-04	223	-3.20	43.84	71.40	120.18	41.45
KB중소형주포커스증권자투자신탁(주식)(운용)	2011-12-30	397	-4.18	25.98	36.40	82.21	64.31
브레인코스닥벤처증권투자신탁(주식혼합)	2018-04-05	461	-6.02	19.95	30.24	94.46	183.23

단위: 억, %, 2026-03-31 기준
자료: 국내 공모형 펀드 기준, 100억 이상, 1년 이상 운용 펀드/ 모펀드 대상 (ETF제외), Fn-guide,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17. 국내 주식형 펀드 월간 수익률 하위 Top 10

펀드명	설정일	설정액	1M	3M	6M	1Y	3Y
한화2.2배레버리지인덱스증권투자신탁(주식-파생재간접형)	2010-12-27	394	-37.95	55.84	159.35	415.43	457.04
NH-Amundi코리아2배레버리지증권투자신탁[주식-파생형]	2013-04-22	2,002	-34.57	51.98	142.29	353.37	395.02
KB스타코리아레버리지2.0증권투자신탁(주식-파생형)(운용)	2013-04-23	411	-34.57	52.57	143.05	356.09	403.54
한국투자두배로증권투자신탁 1(주식-재간접파생형)	2013-05-24	149	-34.46	52.71	143.11	354.62	395.61
IBK2.0배레버리지인덱스증권투자신탁 [주식-파생]	2014-03-13	136	-34.33	52.67	142.63	354.70	399.88
NH-Amundi1.5배레버리지인덱스증권투자신탁[주식-파생형]	2009-06-17	639	-25.24	42.07	103.17	229.70	270.11
NH-Amundi코스닥2배레버리지증권투자신탁[주식-파생형]	2018-02-07	929	-23.81	38.18	62.47	137.15	65.50
한국투자코스닥두배로증권투자신탁(주식-재간접파생형)	2018-01-25	407	-23.21	37.75	61.75	133.57	65.19
미래에셋베스트펀드컬렉션증권자투자신탁 1(주식-재간접형)	2015-08-13	934	-20.04	26.41	62.50	123.52	149.67
한국투자다시성장코리아증권자투자신탁 1(주식)(모)	2003-12-31	510	-19.13	25.07	54.84	110.43	127.55

단위: 억, %, 2026-03-31 기준
자료: 국내 공모형 펀드 기준, 100억 이상, 1년 이상 운용 펀드/ 모펀드 대상 (ETF제외), Fn-guide,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5) 해외 펀드 지역별 설정액 증감 및 수익률 현황

북미 펀드 설정액 9개월 연속 증가세 기록: S&P500, 나스닥 지수 등을 추종하는 인덱스 펀드와 일부 배당주 펀드와 항공우주, AI, 미국 방산, 원유에너지 펀드 등을 중심으로 자금이 유입되어 월간 약 2,347억 증가하며 9개월 연속 증가세 기록

해외 펀드 월간 설정액 증감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북미 펀드는 S&P500 지수, 나스닥 지수 등을 추종하는 인덱스 펀드와 특히 일부 배당주 펀드, 미국 항공우주테크, AI와 미국 방산과 원유에너지 펀드 등을 중심으로 자금이 유입되어 2,347억 증가했다. 북미 펀드는 지난 해 7월 이후 매월 자금이 유입되어 9개월 연속 증가했으며 해당 기간 동안 설정액은 총 10조 1,946억 증가해 해외 주식형 펀드 설정액 증가를 주도하고 있다.

반면 글로벌 펀드는 글로벌테크 펀드, 테슬라 밸류체인펀드, 글로벌 전기차 펀드, 글로벌 AI펀드, 구글 밸류체인펀드, 글로벌 거래소 펀드, 글로벌 배당인컴 펀드, 글로벌 원자력 펀드 등을 중심으로 자금이 유출되어 설정액이 3,205억 감소하여 2개월 연속 월간 감소세를 기록했다.

또한 중국 펀드는 이번 달에는 항셍테크펀드, 중국 헬스케어펀드, 중국 본토 펀드, 중국 테크주 집중 투자 펀드, 중국 반도체 펀드, 중국 과창판 펀드, 중국 휴머노이드로봇 펀드 등에서 자금이 유출되어 2,359억 감소해 5개월 연속 감소를 보였다. 또한 중화권 펀드는 유형 내 비중이 큰 중국 전기차 펀드를 중심으로 환매가 출회되며 설정액이 1,387억 감소하며 12개월 연속 감소를 기록했다.

도표 18. 해외 주식형 펀드 지역별 설정액 및 수익률

구분	설정액(억)			수익률(%)					
지역/국가	260331	260227	증감	1M	3M	6M	1Y	2Y	3Y
글로벌	119,188	122,393	-3,205	-7.10	0.86	6.37	29.09	37.02	65.10
글로벌이머징	1,341	1,357	-16	-9.40	4.29	10.46	27.70	39.30	50.95
EMEA	25	25	0	-9.19	-0.44	5.07	18.44	59.83	80.01
브릭스	1,569	1,599	-29	-8.44	-6.83	-7.58	3.14	18.92	14.62
신흥아시아	2,377	2,435	-58	-5.11	0.84	7.18	9.52	22.98	29.77
친디아	744	761	-17	-7.98	-8.84	-10.30	-4.28	14.93	14.59
중국	57,234	59,593	-2,359	-4.84	-3.23	-6.00	10.51	48.49	21.04
중화권	13,063	14,449	-1,387	8.73	9.33	8.47	30.19	78.47	23.36
베트남	5,687	5,859	-172	-9.59	-3.38	2.66	20.23	22.39	51.58
인도	13,440	13,825	-385	-9.66	-11.71	-7.12	-9.21	-0.21	39.69
아시아퍼시픽	1,329	1,302	28	-6.76	12.09	18.26	37.03	58.06	87.02
아시아퍼시픽(ex_J)	2,991	3,071	-80	-10.23	0.40	0.37	11.89	22.81	24.80
일본	2,940	2,947	-7	-7.45	8.72	20.20	42.21	39.52	96.18
유럽	1,947	1,965	-18	-9.21	-3.90	0.28	4.76	14.83	30.44
신흥유럽	504	505	-1	-3.88	2.59	12.58	19.03	43.90	84.60
러시아	1,942	1,944	-2	1.57	4.75	8.76	11.37	4.88	22.49
북미	409,239	406,892	2,347	-3.23	-2.05	4.36	21.60	38.62	97.22
중남미	350	358	-8	-6.53	8.86	17.41	37.36	19.37	41.15
브라질	398	382	16	-4.00	17.39	24.90	42.25	31.90	71.52

자료: 해외 공모펀드형 기준, Fn-guide,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2026-03-31 기준

글로벌 펀드 약세: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 속 유가 급등과 인플레이션 우려 확대, 성장률 하향 조정 등으로 증시가 약세를 보인 영향으로 월간 성과는 -7.10%의 부진한 모습을 보임

해외 펀드 월간 수익률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글로벌 증시는 이란 전쟁 장기화 우려, 인플레이션 심화 우려로 약세로 시작했다. 이후 미국과 이란의 협상 가능성, 양호한 2월 경제지표 등으로 반등세를 보였다. 하지만 중동전 장기화 우려 속 유가 급등 및 고용시장 약화의 영향으로 다시 약세로 돌아섰다. 한때 트럼프의 전쟁 조기 종료 가능성 시사 등으로 반등하기도 했으나 중동 정세 불안으로 전쟁 장기화 우려가 확대되고, 유가 급등으로 인플레이션 우려, 미국 성장률 하향 조정, 스태그플레이션 우려 등이 확대 되며 약세를 보였다. 이후 지정학적 리스크 장기화 불확실성과 종전 기대감 등으로 급등락을 보이며 변동성 장세를 보였다. 이에 글로벌 펀드는 한 달 동안 -7.10% 하락하는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이란 전쟁 여파로 국제 유가가 급등하자 중동산 원유에 영향을 많이 받는 아시아퍼시픽(ex-J)지역은 -10.23% 하락하는 부진한 성과를 보였다. 이외에도 아시아 국가인 일본, 중국, 베트남에 투자하는 펀드들은 각각 -7.45%, -4.84%, -9.59% 하락하는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반면 중화권 펀드는 유형내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중국 전기차 펀드가 상승세를 보인 영향으로 한 달 동안 8.73% 상승하는 양호한 모습을 보였다.

(6) 해외 주식형 펀드별 설정액 증감 및 수익률 현황

일부 북미 펀드 월간 자금 흐름 상위 기록: 일부 EMP 펀드와 S&P500인덱스 펀드는 증시의 약세 속에서도 자금이 유입되어 월간 자금 흐름 증가 상위 기록

해외 주식형 펀드(ex-ETF)의 펀드별 월간 자금 흐름 증감을 살펴보면, 미래에셋미국인덱스EMP증권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신한미국S&P500인덱스증권자투자신탁(H)[주식-파생형] 등의 일부 북미 펀드가 월간 자금 흐름 증감 상위에 올랐다. 또한 마이다스아시아리더스성장주증권자투자신탁(H)(주식)(운용), 미래에셋퇴직연금다이와일본밸류중소형증권자투자신탁1(주식) 등의 일부 아시아, 일본 펀드도 월간 자금 흐름 증감 상위에 올랐다. 또한 NH-Amundi글로벌우주항공증권자투자신탁(UH)[주식], 한국투자글로벌AI&반도체TOP10증권자투자신탁(USD)(주식)(모), 삼성글로벌반도체증권자투자신탁UH[주식], 더제이더행복글로벌증권자투자신탁[주식] 등의 일부 글로벌 펀드도 월간 자금 흐름 증감 상위에 올랐다. 또한 이란 전쟁 여파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자 iM에셋월드에너지증권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H) 등의 펀드로도 자금이 유입되어 월간 자금 흐름 증감 상위에 올랐다.

반면 피델리티글로벌테크놀로지증권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한국투자글로벌전기차&자율주행증권투자신탁(주식)(모), 피델리티글로벌배당인컴증권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등과 같은 글로벌 펀드는 월간 자금 흐름 증감 하위를 기록했다. 또한 AB미국그로스증권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삼성미국S&P500인덱스증권자투자신탁UH[주식] 등의 북미 펀드도 월간 자금 흐름 증감 하위를 기록했다. 또한 KB중국본토A주증권자투자신탁(주식)(운용), 미래에셋차이나그로스증권자투자신탁 1(주식) 등의 중국 펀드도 월간 자금 흐름 증감 하위를 기록했다.

도표 19. 해외 주식형 펀드 월간 자금 흐름 증감 상위 Top 10

펀드명	설정일	설정액	순자산	증감	1M	6M	1Y
미래에셋미국인덱스EMP증권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2007-08-30	1,356	3,961	**179**	-7.39	-1.47	12.23
마이다스아시아리더스성장주증권자투자신탁(H)(주식)(운용)	2015-05-15	367	1,297	**138**	-6.44	25.08	48.03
NH-Amundi글로벌우주항공증권자투자신탁(UH)[주식]	2022-05-24	1,501	4,715	**127**	-4.85	15.59	50.44
한국투자글로벌AI&반도체TOP10증권자투자신탁(USD)(주식)(모)	2023-06-16	236	591	**84**	-4.03	13.08	62.86
미래에셋퇴직연금다이와일본밸류중소형증권자투자신탁 1(주식)	2015-08-19	148	183	**56**	-6.49	19.77	38.35
iM에셋월드에너지증권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H)	2008-09-19	328	472	**40**	12.42	31.64	33.71
신한미국S&P500인덱스증권자투자신탁(H)[주식-파생형]	2023-06-08	1,004	1,391	**40**	-7.85	-4.64	10.37
삼성글로벌반도체증권자투자신탁UH[주식]	2021-09-29	744	2,226	**35**	-6.33	39.50	88.61
KCGI샐러리맨증권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2018-03-12	2,392	4,473	**27**	-6.19	13.12	30.08
더제이더행복글로벌증권자투자신탁[주식]	2025-12-24	118	125	**24**	-5.38	-	-

단위: 억, %, 2026-03-31 기준, 결산재투자 제외
자료: 공모형 펀드 기준, 운용 펀드/모펀드 대상, ETF제외, Fn-guide,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20. 해외 주식형 펀드 월간 자금 흐름 증감 하위 Top 10

펀드명	설정일	설정액	순자산	증감	1M	6M	1Y
피델리티글로벌테크놀로지증권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2015-06-17	10,004	42,012	**-1,121**	-6.61	-2.82	13.92
AB미국그로스증권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2010-03-30	5,122	14,198	**-583**	-9.85	-11.96	2.30
한국투자글로벌전기차&자율주행증권투자신탁(주식)(모)	2017-10-26	5,775	8,917	**-421**	-7.75	4.61	23.44
KB중국본토A주증권자투자신탁(주식)(운용)	2011-03-23	2,101	3,760	**-209**	-8.92	4.12	23.44
피델리티글로벌배당인컴증권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2013-02-20	6,391	12,652	**-197**	-7.25	4.51	7.73
유리글로벌거래소증권자투자신탁 1[주식]_운용	2007-03-12	504	1,211	**-191**	-2.04	3.61	4.17
미래에셋차이나그로스증권자투자신탁 1(주식)	2014-11-10	1,709	3,902	**-189**	-8.58	-10.93	12.85
삼성미국S&P500인덱스증권자투자신탁UH[주식]	2016-03-07	1,333	4,897	**-175**	-3.07	3.25	15.22
iM에셋월드골드증권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H)	2008-09-18	979	1,467	**-140**	-20.08	17.51	73.91
한국투자베트남그로스증권자투자신탁(주식)	2016-02-17	1,624	3,428	**-129**	-11.87	-1.56	14.95

단위: 억, %, 2026-03-31 기준, 결산재투자 제외
자료: 공모형 펀드 기준, 운용 펀드/모펀드 대상, ETF제외, Fn-guide,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글로벌 에너지 펀드와 원자재 펀드 강세: 이란 전쟁 이후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 영향으로 월간 수익률 상위 기록

펀드별로 월간 성과를 살펴보면, iM에셋월드에너지증권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H), 한화천연자원증권자투자신탁(주식)과 같은 에너지 펀드와 원자재 펀드는 이란 전쟁에 따른 국제 에너지 가격 강세 영향으로 월간 수익률 상위를 기록했다. 또한 미래에셋차이나심천100인덱스증권자투자신탁 1(주식-파생형), 카디안차이나드래곤AShare증권자투자신탁(UH)[주식], KCGI차이나증권투자신탁[주식]과 같은 일부 중국 펀드가 월간 수익률 상위를 기록했다. 또한 키움러시아익스플로러증권투자신탁1[주식], 한화러시아증권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미래에셋러시아업종대표증권자투자신탁1(주식) 등의 러시아 펀드는 러-우 전쟁 이후 금융 제재로 인해 정상적인 거래가 중단되어 있지만 이란 전쟁의 부정적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아 월간 수익률은 상위를 기록했다.

반면 IBK골드마이닝증권자투자신탁 1[주식], iM에셋월드골드증권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H), 신한골드증권투자신탁 1[주식](종류) 등의 골드 펀드는 국제 금가격 부진 영향으로 월간 수익률 하위를 기록했다. 또한 삼성글로벌휴머노이드로봇증권자투자신탁H[주식], 교보악사로보테크증권자투자신탁 1(H)[주식](운용) 등의 테크 펀드도 관련 업종의 부진 영향으로 월간 수익률 하위를 기록했다. 또한 KB스타베트남VN30인덱스증권자투자신탁(주식-파생형)(운용), 한국투자베트남그로스증권자투자신탁(주식) 등의 베트남 펀드도 베트남 증시 부진에 월간 수익률 하위를 기록했다.

도표 21. 해외 주식형 펀드 월간 수익률 상위 Top 10

펀드명	설정일	설정액	1M	3M	6M	1Y	2Y
iM에셋월드에너지증권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H)	2008-09-19	328	12.42	34.76	31.64	33.71	59.52
키움러시아익스플로러증권투자신탁 1[주식]	2007-05-22	386	2.75	6.03	13.88	10.75	59.76
미래에셋차이나심천100인덱스증권자투자신탁 1(주식-파생형)	2016-07-01	135	2.75	6.22	11.92	35.44	34.59
한화천연자원증권자투자신탁(주식)	2008-02-22	993	1.18	26.23	39.78	63.23	104.38
KCGI글로벌고배당증권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2020-10-07	196	1.00	5.89	11.87	11.73	49.20
카디안차이나드래곤AShare증권자투자신탁(UH)[주식]	2007-05-08	270	0.57	3.45	9.55	24.63	24.25
한화러시아증권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2007-09-18	576	0.16	0.52	1.04	2.11	-69.74
미래에셋러시아업종대표증권자투자신탁 1(주식)	2007-12-06	146	-0.14	5.17	2.68	22.01	77.66
KCGI차이나증권투자신탁[주식]	2016-05-02	1,939	-0.89	-0.43	0.05	17.49	35.72
하나글로벌인프라증권자투자신탁[주식]	2007-02-27	477	-1.27	12.06	14.02	17.70	45.18

단위: 억, %, 2026-03-31 기준, Fn-guide,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자료: 공모형 펀드 기준, 100억 이상, 1년 이상 운용펀드/모펀드 대상, ETF,세제지원펀드 제외, H/UH중 우수 펀드만

도표 22. 해외 주식형 펀드 월간 수익률 하위 Top 10

펀드명	설정일	설정액	1M	3M	6M	1Y	2Y
IBK골드마이닝증권자투자신탁 1[주식]	2007-04-16	318	-20.76	-0.12	17.95	76.65	169.19
iM에셋월드골드증권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H)	2008-09-18	979	-20.08	-3.14	17.51	73.91	142.92
신한골드증권투자신탁 1[주식](종류)	2007-11-05	582	-18.96	1.29	16.63	66.07	140.64
삼성글로벌휴머노이드로봇증권자투자신탁H[주식]	2025-02-19	827	-17.93	-4.95	3.84	36.81	-
KB스타베트남VN30인덱스증권자투자신탁(주식-파생형)(운용)	2019-04-22	146	-13.51	-6.79	3.19	29.16	48.11
iM에셋월드광업주증권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H)	2008-09-18	462	-13.38	5.87	25.36	59.68	53.21
IBK럭셔리라이프스타일증권자투자신탁[주식]	2007-02-21	133	-13.23	-12.92	-12.36	-11.86	-13.13
에셋플러스글로벌리치투게더연금증권자투자신탁 1[주식]	2013-05-21	1,190	-12.10	5.22	6.79	32.69	87.28
한국투자베트남그로스증권자투자신탁(주식)	2016-02-17	1,624	-11.87	-5.66	-1.56	14.95	42.02
교보악사로보테크증권자투자신탁 1(H)[주식](운용)	2017-09-11	233	-11.77	-6.02	-0.84	12.09	28.53

단위: 억, %, 2026-03-31 기준, Fn-guide,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자료: 공모형 펀드 기준, 100억 이상, 1년 이상 운용펀드/모펀드 대상, ETF,세제지원펀드 제외, H/UH중 부진 펀드만

(7) 신규 펀드 설정 현황 및 주요 신규 공모형 펀드

신규 펀드 출시 현황 및 규모: 한 달 동안 306개 신규 펀드 론칭, 총 7조 6,616억 설정

월간 유형별 신규 펀드 설정 현황을 살펴보면, 총 306개의 신규 펀드가 설정되었으며 설정 규모는 총 7조 6,616억으로 펀드당 평균 약 250억 규모의 펀드가 설정되었다. 지난 달 대비 신규 펀드 출시 건수는 8% 증가했으며 설정액 규모도 2% 증가했다. 또한 전년 동기와 비교해보면 신규 펀드 출시 건수는 30% 증가했으며 비교적 규모가 작은 펀드의 설정 증가로 설정액 규모는 5% 증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공모와 사모로 구분해서 살펴보면, 공모 펀드는 펀드당 평균 약 201억의 신규 펀드가 총 51개 설정되었으며, 이를 합한 규모는 총 1조 248억이었다. 또한 사모 펀드는 펀드당 평균 약 260억의 신규 펀드가 총 255개 설정되었으며, 이를 합한 규모는 총 6조 6,368억 이었다.

신규 펀드가 제일 많이 설정된 유형은 혼합자산형으로 총 102개의 펀드가 설정되었는데 그 규모는 총 1조 5,616억으로 펀드당 평균 약 153억 수준이었다. 다음으로는 채권형으로 총 42개의 펀드가 설정되었는데 그 규모는 총 2조 2,161억으로 펀드당 평균 약 528억 수준이었다. 다음으로는 재간접형으로 총 37개의 펀드가 설정되었는데 그 규모는 총 1조 52억으로 펀드당 평균 약 272억 수준이었다.

또한 펀드 당 평균 신규 설정 규모가 가장 큰 펀드 유형은 파생형으로 펀드당 평균 656억 규모의 펀드가 3개 설정되었는데 그 규모는 총 1,967억 이었다. 다음으로는 채권형, 부동산형, 재간접형 순이었다. 다음으로는 특별자산형으로 펀드당 평균 248억 규모의 펀드가 24개 설정되었는데 그 규모는 총 5,947억 이었다.

도표 23. 월간 유형별 신규 펀드수 및 설정액

구분	세부 구분	공모			사모			합계
		국내	해외	소계	국내	해외	소계	
주식형	펀드수	11	8	**19**	12	1	**13**	**32**
	설정액	1,949	1,596	**3,545**	1,243	1,500	**2,743**	**6,288**
혼합 주식	펀드수	2	0	**2**	18	0	**18**	**20**
	설정액	310	0	**310**	1,897	0	**1,897**	**2,207**
혼합 채권	펀드수	6	0	**6**	20	0	**20**	**26**
	설정액	1,513	0	**1,513**	2,539	0	**2,539**	**4,052**
채권형	펀드수	3	0	**3**	39	0	**39**	**42**
	설정액	51	0	**51**	22,110	0	**22,110**	**22,161**
재간접	펀드수	4	13	**17**	6	14	**20**	**37**
	설정액	2,919	1,332	**4,251**	1,093	4,708	**5,801**	**10,052**
단기 금융	펀드수	0	0	**0**	0	1	**1**	**1**
	설정액	2	0	**2**	0	45	**45**	**47**
파생형	펀드수	1	0	**1**	1	1	**2**	**3**
	설정액	119	2	**121**	333	1,513	**1,846**	**1,967**
부동산	펀드수	1	0	**1**	15	3	**18**	**19**
	설정액	74	0	**74**	6,245	1,966	**8,211**	**8,285**
특별 자산	펀드수	0	1	**1**	8	15	**23**	**24**
	설정액	0	350	**350**	2,598	2,999	**5,597**	**5,947**
혼합 자산	펀드수	0	1	**1**	80	21	**101**	**102**
	설정액	0	35	**35**	10,009	5,572	**15,581**	**15,616**
합계	**펀드수**	**28**	**23**	**51**	**199**	**56**	**255**	**306**
	설정액	**6,933**	**3,315**	**10,248**	**48,062**	**18,306**	**66,368**	**76,616**

자료: 금융투자협회,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2026-03-31 기준
단위: 억,개

신규로 설정된 공모 펀드를 살펴보면, 증시 급락에 따라 적극적인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증시 반등에 초점을 맞춘 목표전환형 펀드가 다수 출시되었다. 이외에도 고배당 펀드, 공모주 펀드 등 다양한 주식형 펀드가 출시되었다. 특히 투자자들의 높은 관심 속에 코스닥 액티브 펀드가 출시되었다. 또한 다양한 북미 주식형과 글로벌 주식형 등이 신규 출시되기도 했다. 또한 다양한 ETF와 TDF, EMP 등이 다수 출시되며 투자자들의 자산 배분 및 자산 증식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표 24. 월간 주요 신규 공모 펀드

구분	펀드명	유형*	설정일	설정액**
1	KBK-성장과지배구조50목표전환증권투자신탁3(채권혼합-재간접형)(운용)	채권혼합	20260313	1,456
2	하나리레이팅코리아목표전환형증권투자신탁3[채권혼합-재간접형]	주식혼합	20260323	883
3	한화다이내믹집중매수EMP목표전환형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	주식혼합	20260309	561
4	대신G.O.대한민국목표전환형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운용)	채권혼합	20260316	482
5	한국투자JPMorgan글로벌하이일드증권자투자신탁H(채권-재간접형)(모)	글로벌하이일드채권	20260311	451
6	삼성알아서글로벌주도테마EMP목표전환형증권투자신탁2[채권혼합-재간접형]	임시미분류	20260330	404
7	KCGI어부바공모주알파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	채권혼합	20260313	340
8	DB코스닥메가트렌드목표전환형증권투자신탁 1[주식혼합]_운용	주식혼합	20260306	300
9	신영기업가치레벨업목표전환형증권투자신탁4(채권혼합)운용	채권혼합	20260306	280
10	한국투자JPMorgan글로벌하이일드월배당증권자투자신탁H(채권-재간접형)(모)	글로벌하이일드채권	20260311	214
11	코레이트하이일드공모주만기형증권투자신탁4[채권혼합]	채권혼합	20260304	166
12	신한대한민국의패러다임목표전환형증권투자신탁2[채권혼합]	채권혼합	20260331	145
13	웰컴액티브공모주코스닥벤처기업증권투자신탁2[주식]	액티브주식중소형	20260324	141
14	신한G3AI테크EMP목표전환형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	해외주식혼합	20260317	132
15	한국투자JPMorgan글로벌하이일드증권자투자신탁(USD)(채권-재간접형)(모)	글로벌하이일드채권	20260311	110
16	키움연금영웅글로벌자산배분EMP증권투자신탁[혼합-재간접형]	해외자산배분	20260303	50
17	흥국라이징코스닥타겟다운목표전환형증권투자신탁 1[채권혼합]	채권혼합	20260331	42
18	한국투자JPMorgan글로벌하이일드증권자투자신탁UH(채권-재간접형)(모)	글로벌하이일드채권	20260311	36
19	다올오르카알파셀렉션혼합자산투자신탁[사모투자재간접형](운)	사모투자재간접	20260330	35
20	신한지수연계증권투자신탁K-35[채권](종류)	일반채권	20260327	33
21	한국투자JPMorgan글로벌하이일드월배당증권자투자신탁(USD)(채권-재간접형)(모)	글로벌하이일드채권	20260311	32
22	현대인베스트먼트액티브코스닥벤처증권투자신탁 1(주식혼합)	주식혼합	20260309	31
23	삼성액티브KoAct코스닥액티브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인덱스주식섹터	20260309	9,666
24	타임폴리오TIME코스닥액티브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인덱스주식섹터	20260309	5,529
25	신한SOLAI반도체TOP2플러스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인덱스주식기타	20260316	2,419
26	삼성KODEX미국우주항공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북미주식	20260313	1,805
27	신한SOL200타겟위클리커버드콜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파생형]	인덱스주식코스피200	20260316	1,300
28	미래에셋TIGER기술이전바이오액티브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인덱스주식기타	20260316	1,108
29	삼성KODEX미국AI광통신네트워크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북미주식	20260327	600
30	하나1Q은액티브특별자산상장지수투자신탁[은-재간접형]	해외특별자산	20260327	350
31	한화PLUS코스닥150액티브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인덱스주식기타	20260316	349
32	한화PLUSK제조업핵심기업액티브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인덱스주식기타	20260323	192
33	KBRISE차이나AI반도체TOP4Plus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중국주식	20260306	145
34	한화PLUS글로벌저작권핵심기업액티브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글로벌주식	20260327	100
35	한국투자ACEK수출핵심TOP10산업액티브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인덱스주식섹터	20260330	93
36	우리WON두산그룹포커스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인덱스주식기타	20260330	91
37	키움KIWOOM미국성장다우존스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북미주식	20260327	75
38	대신DAISHIN343오피스리츠플러스부동산상장지수투자신탁[재간접형]	부동산기타	20260330	74

자료: Fn-guide,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설정일순 정렬 , 30억 이상 펀드 대상
단위: 억, *유형: Fn-Guide 세부 평가 유형 기준, **설정액: 2026-03-31기준

ETF, 주식 투자 수단의 기본이 되다

(1) ETF를 중심으로 사상 최대 자금이 유입된 국내 주식형 펀드

3월 KOSPI는 급락세를 보인 가운데 국내 주식형 펀드로의 자금 흐름은 ETF를 중심으로 자금이 유입되어 순유입을 기록함

3월 국내 증시는 미국의 이란 공습 및 호르무즈 해협 봉쇄 장기화 우려로 이틀 연속 급락세를 보이며 시작했다. 이후 협상 기대감과 증시 낙폭이 과도하다는 인식이 확산되며 반등세를 보였다. 하지만 이란 분쟁의 중동 확산 우려와 중동 위기에 따른 유가 급등으로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며 약세를 보였다. 이후 지정학적 리스크 장기화 불확실성과 종전 기대감 등으로 급등락을 보이며 높은 변동성 장세를 보인 끝에 약세로 마감했다. 이에 3월 KOSPI 대형주 지수 성과는 -20.04%를 기록한 반면, 중형주와 소형주 지수는 각각 -10.97%, -9.00%, KOSDAQ지수는 -11.77%를 기록하여 Size측면에서는 중소형주가 상대적으로 선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국내 주식형 펀드로의 자금 흐름은 국내 주식형 ETF를 중심으로 중심으로 저가 매수 자금이 유입되어 한 달 동안 약 10조 원 순유입되며 9개월 연속 순유입을 기록했다.

이에 Fn-guide에서 발표하는 테마별 자금 흐름을 살펴보면, ETF(국내주식), 배당주 펀드, 레버리지, ETF(기타), TDF, 밸류업, IT 펀드 유형 등으로는 자금 유입이 되었으나, 채권 시장의 부진으로 채권형 ETF를 비롯해 채권형 상품에서 자금 유출이 나타났으며, ETF(해외주식)과 ESG(채권) 펀드 등에서도 자금이 유출되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초 이후 3월까지 ETF(국내주식)으로 순유입된 자금은 32.8조 원으로, 3개월만에 기존 역대 최대 규모였던 2025년 연간 순유입 규모를 넘어서는 강세를 기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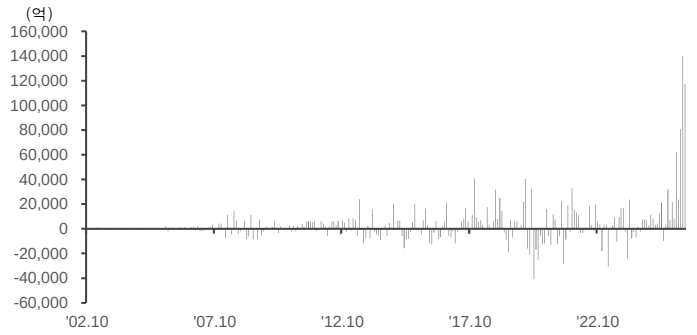
3월 국내 증시는 이란 전쟁 여파로 높은 변동성이 나타났는데 특히 증시 급락시기마다 저가매수 자금이 유입되는 모습을 보였다. 이 과정에서 투자자들은 주로 ETF를 통해 저가매수에 대응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학개미 운동 이후 개인 투자자들이 국내 주식 투자에 대거 뛰어든 가운데 지난 해부터 국내 주식형 펀드로의 자금 유입도 증가했는데, 특히 투자자들은 투자의 편리성과 투명성 등을 갖춘 ETF를 적극 활용해 투자에 나서고 있다. Fn-guide에 따르면, ETF(국내주식) 유형은 연초 이후 3월까지 누적 순유입액이 32.8조 원에 달해, 종전 역대 최대였던 2025년의 연간 유입액 18.8조 원을 이미 넘어서는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하고 있다. 월간 기준으로 보면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한 지난 2월 약 14.0조 원 순유입에 이어 3월에는 약 10.8조 원 가까운 자금이 유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도표 25. 테마 유형별 자금흐름 증감 상하위 Top10

테마	설정액 (억)	순자산 (억)	수익률(%)			자금흐름(억)		
			1M	YTD	1Y	1M	YTD	1Y
ETF(국내주식)*	1,133,356	1,524,203	-15.46	26.75	104.90	**107,798**	328,413	499,056
배당주펀드	220,768	341,693	-7.03	14.16	37.06	**13,617**	44,912	96,957
레버리지	112,892	172,744	-28.60	38.21	199.45	**13,174**	22,076	-5,936
ETF(기타)	483,107	483,008	-2.50	0.30	5.73	**11,299**	68,198	194,317
퇴직연금(공모)	414,229	620,252	-6.21	2.30	18.26	**9,796**	40,823	110,821
라이프사이클	197,026	307,469	-5.71	-0.23	13.58	**6,931**	27,027	72,794
밸류업	13,267	31,523	-15.20	32.08	133.59	**6,102**	14,222	17,044
밸류업(ETF)	11,425	27,342	-15.31	32.15	134.28	**4,717**	10,894	13,332
IT펀드	53,251	169,289	-8.82	4.24	39.69	**3,972**	5,789	7,081
가치주	44,157	95,499	-11.37	18.90	80.78	**2,010**	1,778	17,137
원자재(주식)	5,482	9,012	-11.56	8.49	60.34	**-373**	1,316	3,200
연금저축	158,508	237,958	-8.01	6.45	31.11	**-462**	-4,518	-4,664
뉴딜	25,056	16,503	-13.13	13.86	42.17	**-495**	-1,625	-2,344
헬스케어	13,356	17,028	-7.81	2.21	29.74	**-524**	-1,658	-1,118
인컴	29,952	38,981	-4.46	0.36	8.88	**-644**	81	5,759
월지급식	24,568	16,400	-2.30	-0.72	3.52	**-842**	-2,594	1,961
ETF(국내채권)	634,679	669,554	-0.62	-0.23	0.85	**-1,990**	7,103	142,763
ESG펀드	54,738	73,783	-5.84	4.63	17.18	**-4,024**	-17,665	-18,490
ETF(해외주식)*	510,029	992,784	-3.25	-0.85	23.75	**-4,519**	68,599	264,099
ESG(채권)	40,880	41,891	-0.94	-0.50	1.50	**-4,906**	-18,241	-12,825

자료 : Fn-guide,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국내 공모형 펀드 대상, * Fn-guide 기준으로 금융투자협회기준과는 차이 존재
단위: 억 원, 2026-03-31, 1M 자금 흐름 기준 정렬

도표 26. ETF(국내주식) 월별 자금 흐름 추이



자료 : Fn-guide,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2) 국내 ETF 시장의 동향과 향후 전망

국내 ETF 시장 규모는 2026년 4월 20일 현재 410조 원으로 사상 최대 규모로 성장함

국내에서 ETF는 2002년 10월 처음 상장 이후 2010년에는 10조 원 대에 육박하는 수준까지 성장했으며, 2020년에는 5배 이상 성장해서 52조 원대를 기록했다. 특히 2023년 이후 가파르게 성장해 2026년 4월 20일 현재 410조 원대로 최근 5년 여 만에 8배 이상 성장해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 중이다.

국내에서 최초로 상장된 ETF는 KODEX200, KOSEF200(현 KIWOOM 200)으로 KOSPI200을 추종하는 passive 상품으로서 일부 기관과 개인을 중심으로 투자가 이루어졌다. 하지만 이후 다양한 섹터와 자산 유형의 ETF가 출시되면서 단순한 passive상품이 아니라 기관 투자자 입장에서는 Core- Satellite 전략을 운용할 수 있는 금융 상품이 되면서 관심이 점점 더 높아졌다. 그러다가 팬데믹 시절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ETF로도 대규모 자금이 유입되었다. 특히 2021년에는 나스닥, S&P500 등 미국 증시 추종 해외 주식형 ETF나 전기차, 배터리 등 관련 섹터 국내외 주식형 ETF로 대규모 자금이 유입되면서 20조 원 이상 증가했다.

2023년 ETF의 순자산 총액은 글로벌 자산시장의 상승, 투자 심리 회복 특히 연준의 긴축 통화 정책 기조 변화 기대감과 함께 채권형 또는 채권 액티브형 등으로 자금이 대거 유입되어 결국 전년말 대비 무려 54.2% 증가해 121조 원을 돌파했다. 또한 ETF 상장 종목수는 812개로 신규 상장도 활발해 2023년 한 해 동안 146개가 증가했는데 이는 2022년 증가한 133개 대비 10%p 많이 증가한 것이다. 특히 국내와 해외 액티브 ETF가 큰 폭으로 성장을 하며 ETF 시장 성장을 주도했는데, 그 중에서도 국내 채권 관련 액티브 ETF가 다양한 상품이 출시되며 투자자들의 관심을 끄는데 성공해 큰 성장세를 보였다.

2023년에는 특히 국내 채권형 ETF가 투자자들의 중요한 투자 수단의 하나로 자리 잡으면서 큰 폭의 증가세 기록

2023년에는 특히 국내 채권형 ETF가 투자자들의 중요한 투자 수단의 하나로 자리 잡으면서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2022년 4분기 레고랜드 채권 사태를 비롯해 여러 우려가 집중되며 크레딧 시장과 단기 자금시장이 경색을 보이면서 국내 채권 시장은 부진한 모습을 보였었다. 하지만 정부의 시장 안정화 조치 등으로 인해 2022년 12월 이후 빠르게 안정을 찾았으며 여기에 미국 연준의 긴축 통화정책 기조 변화에 대한 기대감이 맞물

리면서 투자심리는 회복세를 보였다. 특히 2023년에는 높은 절대 금리 레벨에 따른 투자매력도 부각, 투자의 편리성, 투자자 저변 확대 등으로 국내 채권형 ETF가 부각된 가운데 다양한 상품(액티브 ETF 포함)이 출시되며 투자자들의 관심을 끄는데 성공했다. 또한, 만기가 있는 ETF, 금리형 ETF 등 다양한 ETF가 출시되며 높은 성장세를 보였다. 이에 국내 채권형 ETF는 상반기 동안 자금 유입이 몰리면서 큰 폭의 성장을 기록했다. 뿐만 아니라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은 해외 투자 ETF도 미국 배당주 ETF를 비롯해 해외 주식형 ETF로도 자금이 유입되며 큰 폭의 성장을 보였다.

2024년 ETF 순자산 총액은 전년말 대비 43.4% 증가해 약 173.6조 원, 상장 종목수는 연초 이후 123개가 증가한 935개를 기록

2024년에도 ETF의 순자산 총액은 인공 지능과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테크주의 강세 속에 해외 주식형 ETF와 투자자들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는 채권형 ETF를 중심으로 대규모 자금이 유입되어 결국 전년말 대비 43.4% 증가해 약 173.6조 원으로 사상 최고 수준을 경신했다. 또한 ETF 상장 종목수는 연초 이후 123개가 증가한 935개로 신규 상장도 활발하게 나타났다.

특히 해외 주식형 ETF가 S&P500, 나스닥, 다우존스 등 미국 대표 3대 지수를 추종하는 다양한 ETF 상품이 출시되며 투자자들의 관심을 끄는데 성공해 큰 성장세를 보였다. 이는 북미 증시가 사상 최고 수준의 호조를 보이자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며 투자자금 유입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특히 동학 개미 운동에 이어 서학 개미운동이라 칭해질 정도로 개인 투자자들의 해외 주식에 대한 관심 증가로 해외 주식 투자가 크게 증가한 가운데 해외 주식 직접 투자뿐만 아니라 국내에 상장된 해외 주식형 ETF로도 많은 자금이 유입되었다. 이에 해외 주식형 ETF의 순자산 총액이 연간 31.4조 원 이상 증가하는 큰 폭의 성장세를 보였으며, 이로 인해 해외 주식형 ETF의 순자산 총액이 국내 주식형 ETF를 넘어섰다.

또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은 액티브 ETF, 금리형 ETF 등 국내외 채권형 ETF도 다양하게 출시되며 성장했다. 2024년에도 국내 채권형 ETF는 투자자들의 높은 관심이 유지되며 3월, 10월을 제외하고 꾸준히 자금이 유입되어 연초 이후 9조 원 이상의 순자산 총액 증가를 기록했다.

2025년말 ETF 순자산 총액은 전년말 대비 123.5조 원 이상 증가한 +71.2% 성장하며 약 297.1조 원을 기록함, 상장 종목수는 연초 이후 123개가 증가한 1,058개로 높은 성장세를 이어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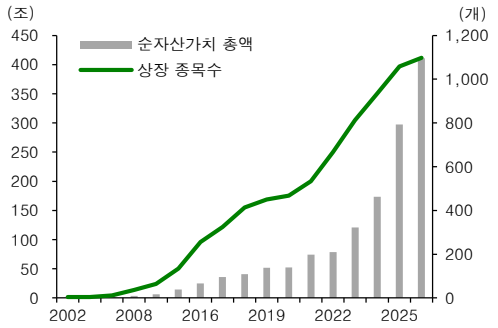
2025년에도 ETF의 순자산가치 총액은 인공 지능과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테크주의 강세 속에 국내외 주식형 ETF와 시장 변동성 확대와 금리 추구 성향 강화 등으로 채권형 ETF 특히 파킹형 또는 금리형 ETF를 중심으로 대규모 자금이 유입되어 297.1조 원을 기록하며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특히 시장의 조정 시기 마다 저가매수 자금이 대거 유입되면서 한 해 동안 123.5조 원 이상 증가해 결국 전년말 대비 +71.2%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다. 또한 ETF 상장 종목수는 연초 이후 123개가 증가한 1,058개로 신규 상장도 활발하게 나타났다.

자세히 살펴보면 상반기 글로벌 증시가 높은 변동성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를 투자 기회로 삼은 투자자들의 자금이 ETF를 중심으로 대거 유입되었다. 특히 하반기 들어서는 새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 등으로 국내 증시가 급등세를 보이자 투자 심리가 강화로 대규모 자금이 유입되어 국내 주식형 ETF 순자산 총액은 한 해 동안 53조 원 가까이 증가했다. 이는 2024년 전체 ETF 순자산총액 연간 증가 규모와 비슷한 규모로 역대 최고 수준의 성장세를 기록했다. 또한 해외 주식형 ETF의 순자산 총액의 경우에도 투자자들의 미국 빅테크 기업에 대한 관심 증가 등으로 투자 자금이 대거 유입되면서 역대 최대 규모인 39조 원 가까이 증가했다. 또한 국내 채권형 ETF로도 대규모 자금이 유입되었는데 초단기 상품인 MMF와 경쟁 상품인 머니마켓액티브ETF 등으로 대규모 자금이 유입되면서 국내 채권형 ETF 순자산 총액도 15.6조 원 이상 증가했다.

2026년 4월 20일 기준 ETF 순자산 총액은 약 4개월 만에 전년도 연간 증가 규모와 비슷한 113.7조 원 증가해 +38.3% 성장하며 약 410.8조 원을 기록함, 상장 종목수는 연초 이후 39개가 증가한 1,097개로 높은 성장세를 이어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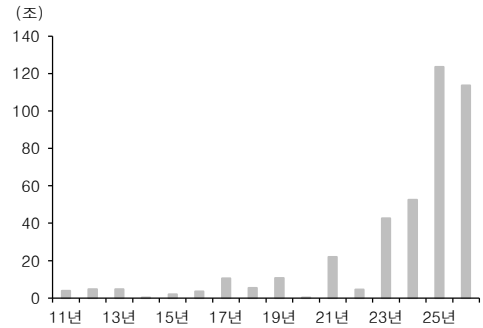
2026년에는 3월 이란전쟁으로 국내 증시의 변동성이 확대된 가운데 증시 하락 시기에 ETF를 중심으로 저가매수세가 유입되었고 4월 들어 증시가 이란 전쟁의 영향에서 조금씩 벗어나며 증시가 반등을 보이자 투자 심리가 개선되며 대규모 투자 자금이 유입된 영향으로 4월 20일 기준 연초 이후 전체 ETF 순자산 총액 증감은 지난 해 연간 증가 규모에 가까운 113.7조 원 증가해 결국 전년말 대비 +38.3%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다. 이처럼 국내외 주식형 ETF를 중심으로 대규모 자금이 유입되면서 전체 ETF 순자산 총액 규모는 4월 20일 기준 410.8조 원을 돌파하며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 중이다. 또한 ETF 상장 종목수는 연초 이후 39개가 증가한 1,097개로 신규 상장도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표 27. 연도별 ETF 순자산가치 총액 및 종목수 추이



자료 : KRX,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2026-04-20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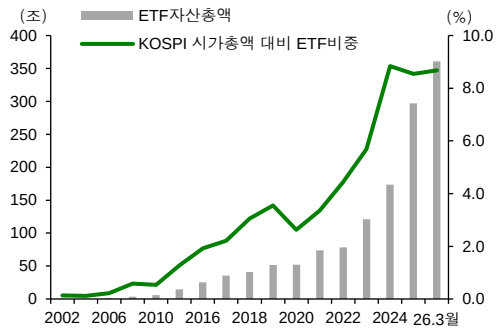
도표 28. 연도별 ETF 순자산가치 총액 증감 추이



자료 : KRX,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2026-04-20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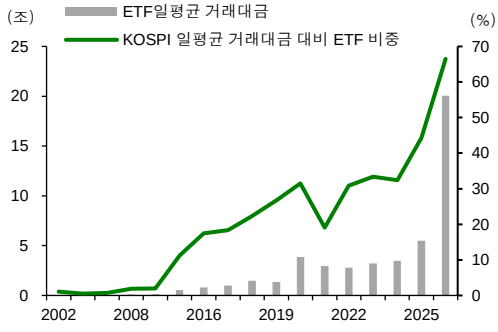
이처럼 ETF가 성장세가 가팔라지면서 2026년 3월말 기준 KOSPI시가총액(4,159조 원) 대비 전체 ETF의 순자산 총액(360.7조원) 의 비중은 8%를 넘어서게 되었다. 특히 ETF의 일평균 거래대금의 경우 2026년 3월 20조 원을 기록하며 2025년 일평균 거래대금(5.5조 원)의 4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ETF가 투자의 중심으로 떠오른 것을 숫자로 확인 시켜줬다. 이 영향으로 2026년 3월 KOSPI 일평균 거래대금(30조 원) 대비 ETF 일평균 거래대금 비중은 66.5%까지 이를 정도로 투자자들의 ETF 거래는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표 29. 연도별 KOSPI 시가총액 대비 ETF 자산 비중 추이



자료 : KRX,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2026-03-31기준

도표 30. 연도별 KOSPI 대비 ETF 거래대금 비중 추이



자료 : KRX,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2026-03-31기준

ETF를 자산 유형별로 살펴보면, 순자산 총액 기준으로는 국내 주식형, 해외 주식형, 파생형, 채권형 ETF를 중심으로 성장해 옴

한편 순자산 총액 기준으로 ETF를 자산 유형별 추이를 살펴보면, 2002년 이후 국내 주식형, 해외 주식형을 중심으로 레버리지 ETF와 인버스 ETF가 포함되어 있는 파생형과 투자자들의 새로운 투자처로 확실히 자리 잡은 채권형 ETF 등이 주축이 되어 성장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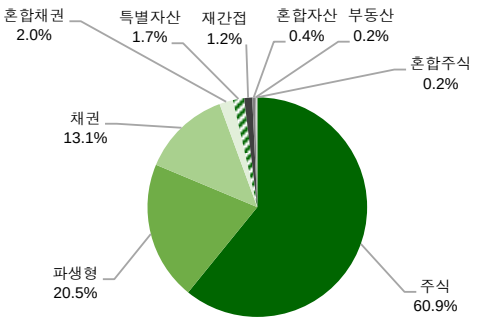
또한 상장종목수 기준으로 ETF를 자산 유형별 추이를 살펴보면, 국내 주식형, 레버리지 ETF와 인버스 ETF가 포함되어 있는 파생형을 중심으로 성장해왔다. 팬데믹 시기를 지나면서 비로서 해외 주식형 ETF의 상장이 활발해졌으며 2023년 이후 채권형 ETF의 상장이 증가하기 시작해 이들 유형을 중심으로 ETF 시장이 성장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ETF를 자산 유형별로 살펴보면, 순자산 총액 기준으로는 주식형이 약 250조 원으로 전체의 60.9%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뒤를 이어 파생형,채권형, 혼합채권형 순

2026년 4월 20일 현재 ETF를 자산 유형별로 살펴보면, 순자산 총액 기준으로는 주식형이 약 250조 원으로 전체의 60.9%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다음으로는 파생형으로 84조 원 수준의 순자산 총액을 기록하며 전체 ETF 중 20.5%를 차지하고 있다. 다음은 약 53.9조 원의 순자산 총액을 가지고 있는 채권형 ETF로 전체 ETF 중 13.1%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다음으로는 혼합채권형, 특별자산형, 재간접형 등이 각각 2.0%, 1.7%, 1.2%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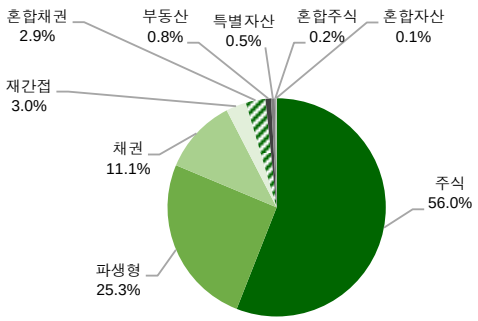
자산 유형별 ETF 종목수 비중을 살펴보면 주식형이 614개가 상장되어 전체의 56.0%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다음으로는 파생형으로 278개가 상장되어 전체 ETF 중 25.3%를 차지하고 있다. 다음은 122개가 상장된 채권형 ETF로 전체 ETF 중 11.1%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도표 31. 자산 유형별 ETF 순자산총액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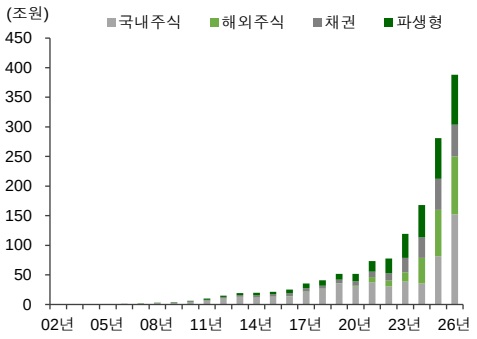
자료 : 금융투자협회,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2026-04-20기준

도표 32. 자산 유형별 ETF 종목수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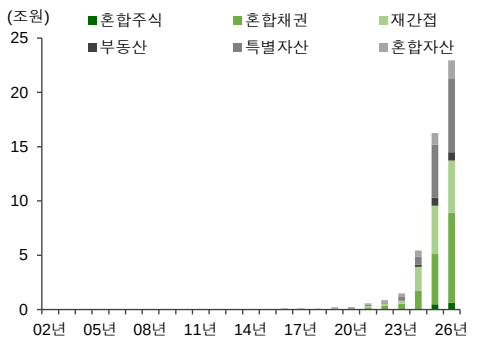
자료 : 금융투자협회,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2026-04-20기준

도표 33. 자산 유형별 ETF 순자산총액 추이 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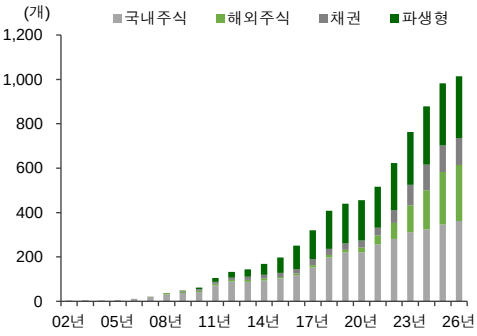
자료 : 금융투자협회,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2026-04-20기준

도표 34. 자산 유형별 ETF 순자산총액 추이 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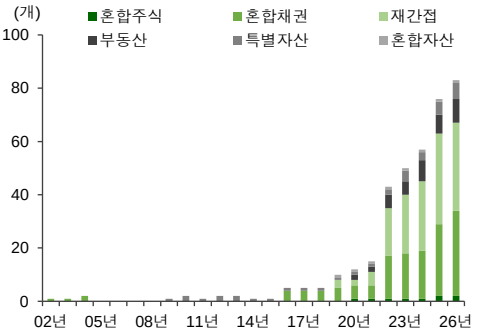
자료 : 금융투자협회,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2026-04-20기준

도표 35. 자산 유형별 ETF 종목수 추이 I



자료 : 금융투자협회,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2026-04-20기준

도표 36. 자산 유형별 ETF 종목수 추이 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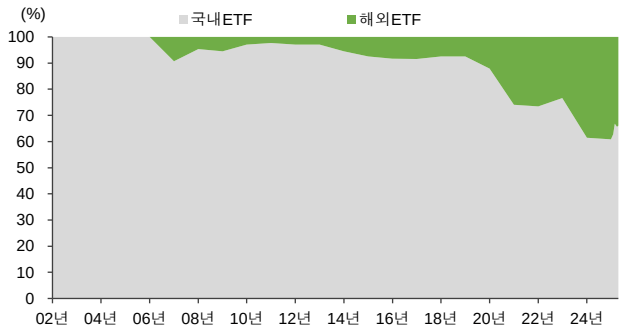
자료 : 금융투자협회,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2026-04-20기준

2026년 4월 20일 기준 국내 ETF : 해외 ETF 순자산 총액 비중은 66% : 34%이나 팬데믹 시기를 거치면서 해외 ETF 비중이 빠르게 성장함

순자산 총액 기준으로 국내와 해외로 나누어 ETF를 살펴보면, 2026년 4월 20일 기준 국내 ETF와 해외 ETF는 각각 271.3조 원과 139.5조 원으로 국내 ETF : 해외 ETF 비중은 66% : 34%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ETF가 처음 출시된 2007년 이후 한동안 해외ETF는 더딘 성장세를 보였으나 2015년 이후 서서히 증가세를 보이기 시작했으며 팬데믹 시기를 거치면서 비로소 성장세가 강화되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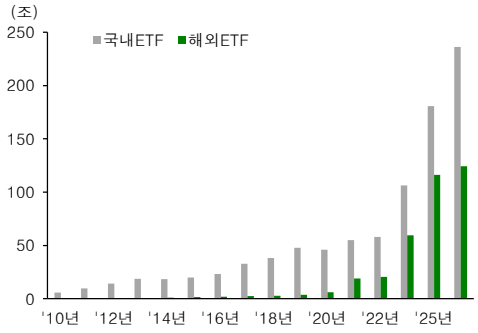
이 과정에서 국내 ETF와 해외 ETF 모두 주식형을 중심으로 성장세를 보였는데 2026년 4월 20일 기준 국내 주식형의 경우 국내 ETF의 56.2%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해외 주식형의 경우 해외 ETF의 69.9%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표 37. 국내 ETF vs 해외 ETF 순자산총액 비중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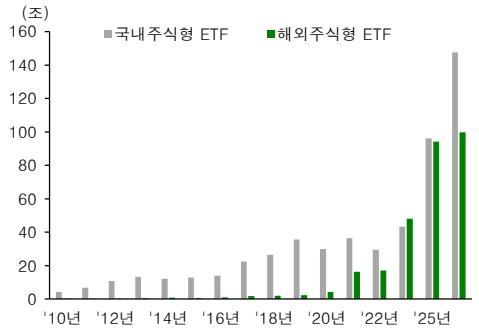
자료 : 금융투자협회,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38. 국내 Vs 해외 ETF 순자산총액 추이



자료 : KRX,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2026-03-31기준

도표 39. 국내 주식형 Vs 해외 주식형 ETF 순자산총액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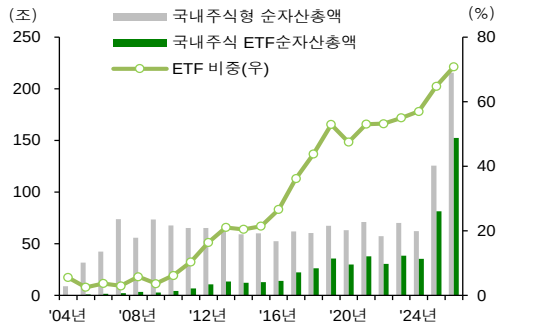
자료 : KRX,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2026-03-31기준

국내 주식형 펀드의 경우 2026년 4월 20일 기준 국내 주식형 펀드 전체 순자산 총액(215.3조 원) 중 국내 주식형 ETF(152.5조 원)가 차지하는 비중은 70.8%로 국내 주식형 펀드(ex-ETF) 대비 2배 이상 큼

이처럼 주식형 ETF가 투자 수단의 하나로 확고히 자리 매김하면서 이젠 주식형 펀드(ex-ETF) 규모를 압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6년 4월 20일 기준 국내 주식형 펀드의 경우 국내 주식형 펀드 전체 순자산 총액(215.3조 원) 중 국내 주식형 ETF(152.5조 원)가 차지하는 비중은 70.8%로 국내 주식형 펀드(ex-ETF) 대비 2배 이상 큰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50%를 넘어선 이래 지속적으로 비중이 증가해 존재감이 더욱 커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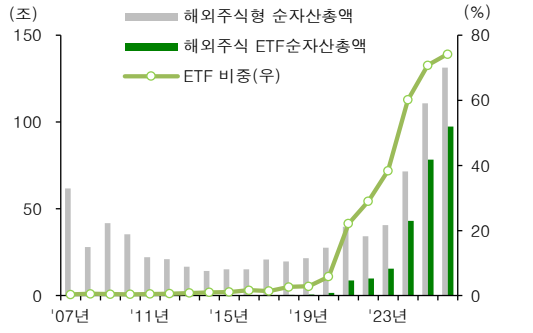
해외 주식형 펀드의 경우 2026년 4월 20일 기준 해외 주식형 펀드 전체 순자산 총액(131.4조 원) 중 해외 주식형 ETF(97.5조 원)가 차지하는 비중은 74.2%로 2024년 50%를 넘어선 이래 지속적으로 비중이 증가하며 존재감이 더욱 커지고 있다.

도표 40. 국내 주식형 펀드 內 ETF 비중 추이



자료 : 금융투자협회,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2026-04-20기준

도표 41. 해외 주식형 펀드 內 ETF 비중 추이



자료 : 금융투자협회,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2026-04-20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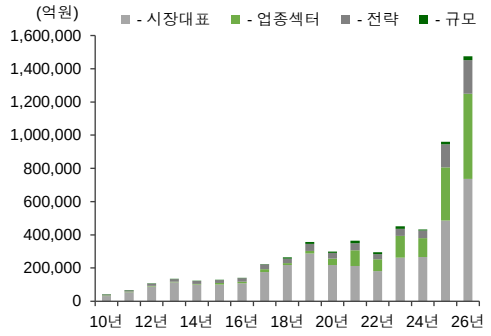
국내 주식 ETF와 해외주식 ETF 모두 시장 내 대표 지수 추종형 ETF 를 중심으로 성장해 옴

국내 주식 ETF와 해외 주식 ETF의 한국거래소의 세부 유형별 기준으로 자산 유형별 성장 과정을 살펴보면, 국내 주식 ETF와 해외주식 ETF 모두 시장 내 대표 지수 추종형 ETF 를 중심으로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주식 ETF에서 시장 대표 유형이 차지하는 비중은 49.9% 해외 주식 ETF에서 시장 대표가 차지하는 비중은 56.2%로 passive 상품 기본의 성격에 충실한 유형이 중심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대 이후 업종 섹터 유형이 투자자들의 높은 관심 속에 다양한 상품 출시되며 빠르게 성장한 것으로 나타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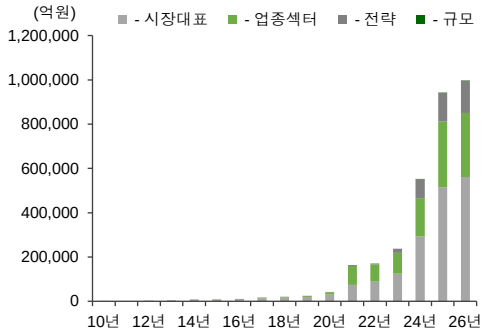
하지만 2020년대 이후 특히 업종 섹터 유형이 투자자들의 높은 관심 속에 다양한 상품이 출시되며 빠르게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국내 업종섹터 ETF는 국내 주식 ETF의 35%를 차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해외 업종섹터 ETF는 해외 주식 ETF의 29%를 차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배당, 일부 커버드콜 등 투자전략을 구현한 기초지수를 추종하는 국내 전략 ETF의 경우 국내 주식 ETF의 13.8%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전략 ETF의 경우 해외 주식 ETF의 14.8%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표 42. 국내 주식 ETF 세부 유형별 순자산총액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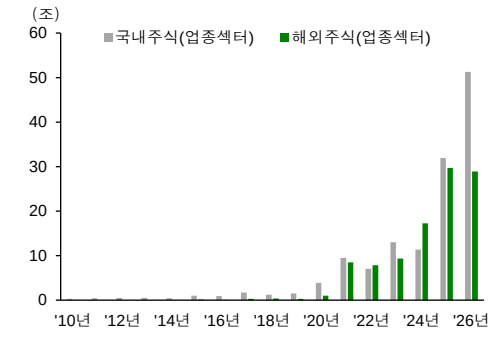
자료 : KRX,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2026-03-31기준

도표 43. 해외 주식 ETF 세부 유형별 순자산총액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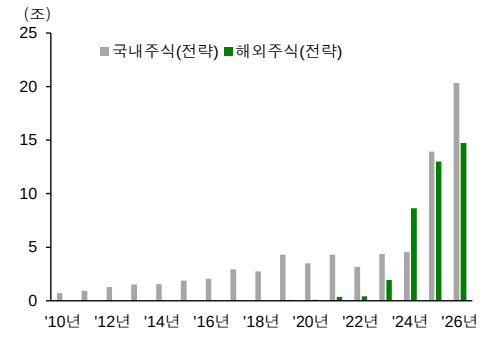
자료 : KRX,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2026-03-31기준

도표 44. 국내 Vs 해외 업종섹터 ETF 순자산총액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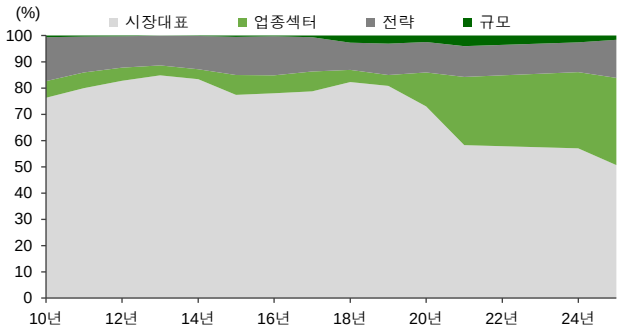
자료 : KRX,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2026-03-31기준

도표 45. 국내 Vs 해외 전략 ETF 순자산총액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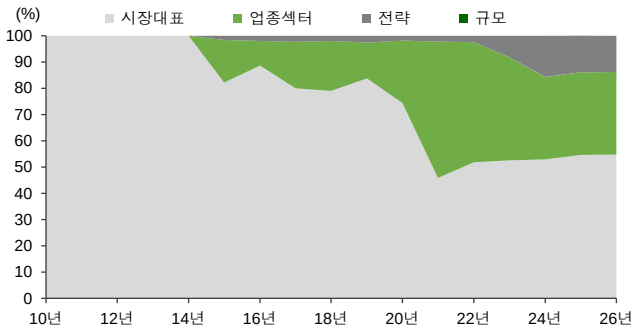
자료 : KRX,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2026-03-31기준

도표 46. 국내 주식 ETF 세부 유형별 순자산총액 비중 추이



자료 : KRX, Fn-guide,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47. 해외 주식 ETF 세부 유형별 순자산총액 비중 추이



자료 : KRX, Fn-guide,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연초 이후 반도체 업종 레버리지 또는 집중 투자ETF가 관련 업종의 강세 영향으로 우수한 성과 기록해

연초 이후 각 주식형 ETF별 성과를 살펴보면, 국내 주식 ETF의 경우 반도체업종 레버리지와 집중투자 ETF가 반도체 업종의 강한 상승세에 힘입어 우수한 성과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KOSPI200 레버리지 ETF도 KOSPI200의 상승세 영향으로 양호한 성과를 보였다. 해외 주식 ETF 의 경우에도 글로벌 반도체업종의 강세 영향으로 관련 레버리지 ETF가 우수한 성과를 기록했다. 또한 AI전력인프라도 투자수요가 몰리며 양호한 성과를 기록했다.

도표 48. 주요 ETF(국내 주식) 수익률 상위 성과 현황

펀드명	설정일	순자산	1M	3M	YTD	6M	1Y
삼성KODEX반도체레버리지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파생형]	20241021	16,581	38.77	122.47	204.77	273.47	1,050.18
미래에셋TIGER200IT레버리지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파생형)	20160512	2,096	70.56	112.85	204.20	319.70	1,287.91
미래에셋TIGER반도체TOP10레버리지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파생형)	20240722	16,385	31.90	105.54	197.41	278.77	1,097.82
KBRISE200선물레버리지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파생형)	20160908	926	44.86	64.08	135.06	195.96	646.14
미래에셋TIGER레버리지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파생형]	20100409	3,115	44.11	63.92	134.89	195.41	647.30
한국투자ACE레버리지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파생형)	20120125	637	44.29	63.79	134.51	195.17	645.30
미래에셋TIGER200선물레버리지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파생형)	20170424	2,219	44.63	63.75	134.46	195.01	642.95
한화PLUS200선물레버리지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파생형)	20160927	516	44.78	63.73	134.40	194.89	643.03
NH-AmundiHANARO200선물레버리지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파생형]	20180813	1,188	44.64	63.67	133.96	194.35	642.28
키움KIWOOM200선물레버리지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파생형]	20160909	546	44.45	63.29	133.84	194.33	640.48
삼성KODEX레버리지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파생형]	20100218	63,830	43.75	62.13	131.98	191.33	631.89
삼성KODEX KRX300레버리지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파생형]	20181015	822	40.58	61.05	126.74	181.46	581.11
삼성KODEX건설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20091030	2,556	29.51	81.44	126.41	130.09	195.96
미래에셋TIGER200건설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20110406	1,990	29.42	70.80	118.44	126.50	234.54
한화PLUS태양광&ESS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20230619	1,599	31.50	91.75	115.09	122.84	336.27
NH-AmundiHANAROFnK-반도체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20210729	21,332	31.14	76.84	109.11	146.29	371.32
KBRISE네트워크인프라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20201028	2,954	40.60	81.74	105.59	154.65	381.79
한국투자ACE원자력TOP10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20220627	4,172	21.57	55.67	104.63	122.30	325.64
미래에셋TIGER2차전지TOP10레버리지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파생형)	20211214	2,374	87.39	52.42	102.55	55.25	151.78
한국투자ACEAI반도체TOP3+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20231016	6,706	19.06	66.06	102.00	124.18	328.63
IBKITFK-AI반도체코어테크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20250120	947	37.55	71.19	92.85	125.20	325.02
삼성KODEX반도체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20060627	47,465	20.49	62.00	90.85	115.51	289.85
미래에셋TIGER반도체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20060627	11,111	20.46	61.93	90.71	116.13	294.12
삼성KODEX2차전지산업레버리지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파생형]	20230703	10,328	72.90	39.76	89.98	49.29	160.40
삼성KODEX200ITTotalReturn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20200924	1,447	33.23	58.15	89.91	128.21	327.74
미래에셋TIGER200IT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20110406	11,150	32.99	57.87	89.49	127.62	325.08
BNKBNK온디바이스AI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20240722	901	28.23	64.66	89.32	126.28	292.08
삼성KODEX IT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20170327	741	30.91	59.32	88.59	121.19	289.98
현대UNICORNSK하이닉스밸류체인액티브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20241106	1,629	25.65	66.14	88.34	118.91	349.05
미래에셋TIGER반도체TOP10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20210809	98,020	17.52	54.96	88.00	117.11	297.58

자료 : Fn-guide, 신영증권리서치센터, 순자산 300억 이상 & 설정일 1년 이상 된 펀드 대상, 설정액 순, 단위: 억, %, 2026-04-24기준

도표 49. 주요 ETF(해외 주식) 수익률 상위 성과 현황

펀드명	설정일	순자산	1M	3M	YTD	6M	1Y
미래에셋TIGER필라델피아반도체레버리지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혼합-파생형)(합성)	20220414	5,817	56.07	48.74	93.46	116.95	536.18
한화PLUS글로벌HBM반도체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20220920	4,382	19.01	36.17	72.46	124.29	393.45
미래에셋TIGER글로벌AI전력인프라액티브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20240909	6,660	25.69	37.90	58.33	50.96	187.13
신한SOL글로벌AI반도체탑픽액티브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20220408	1,441	20.06	30.15	53.74	72.17	219.70
타임폴리오TIME글로벌AI인공지능액티브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20230515	16,669	23.19	27.69	50.72	46.68	164.62
삼성액티브KoAct글로벌친환경전력인프라액티브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20240116	504	18.05	29.62	49.72	54.43	187.66
한국투자ACE엔비디아밸류체인액티브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20240610	2,351	26.00	32.77	49.56	62.57	235.93
삼성KODEX차이나AI테크액티브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20220513	501	17.84	28.74	47.66	49.50	119.23
삼성KODEX미국AI전력핵심인프라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20240705	16,921	22.36	36.36	47.02	33.28	144.23
KBRISE미국AI테크액티브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20241122	500	22.70	31.21	46.63	45.59	136.36
KBRISE미국반도체NYSE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20231020	538	26.76	25.16	45.50	56.29	170.37
NH-AmundiHANARO글로벌생성형AI액티브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20230707	452	25.41	30.47	45.50	46.29	142.86
한국투자ACE글로벌반도체TOP4Plus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20221114	12,296	18.43	25.66	45.06	63.54	218.24
한국투자ACE구글밸류체인액티브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20240610	2,064	22.53	26.25	42.91	53.66	166.67
NH-AmundiHANARO글로벌피지컬AI액티브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20250417	434	22.18	27.39	42.19	50.73	127.28
미래에셋TIGER미국필라델피아반도체나스닥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20210408	44,426	26.18	24.24	42.09	52.60	170.08
미래에셋TIGERTSMC파운드리밸류체인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20230330	478	15.40	19.49	41.91	54.21	159.56
한화PLUS글로벌희토류&전략자원생산기업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20220114	609	24.56	10.55	41.79	54.40	185.84
삼성액티브KoAct글로벌AI&로봇액티브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20231117	2,107	16.41	22.22	40.59	49.48	140.96
삼성액티브KoAct미국나스닥성장기업액티브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20250221	3,577	17.36	21.99	39.28	44.76	141.34
한국투자ACE미국반도체데일리타겟커버드콜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파생형)(합성)	20240418	1,291	20.42	20.92	39.22	50.93	158.65
미래에셋TIGER글로벌AI액티브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20231010	4,286	23.81	24.57	38.24	36.49	126.39
한국투자ACE애플밸류체인액티브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20240610	304	18.79	30.02	37.90	49.87	133.17
신한SOL미국AI반도체칩메이커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20240412	411	29.82	24.86	36.74	42.14	165.65
삼성KODEX미국나스닥AI테크액티브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20211220	1,369	17.71	24.21	36.38	36.82	115.70
삼성KODEX 미국반도체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20210628	9,772	21.00	19.68	34.88	45.40	159.55
타임폴리오TIME미국나스닥100액티브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20220509	13,958	16.04	20.44	32.11	29.18	122.08
미래에셋TIGER글로벌리튬&2차전지SOLACTIVE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파생형)(합성)	20210716	3,240	20.52	17.21	31.76	52.55	149.94
키움KIWOOM미국원유에너지기업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20240112	473	-6.00	18.31	31.63	34.26	50.08
미래에셋TIGER미국필라델피아AI반도체나스닥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20241122	10,054	20.43	19.52	31.58	36.04	148.45

자료 : Fn-guide, 신영증권리서치센터, 순자산 300억 이상 & 설정일 1년 이상 된 펀드 대상, 설정액 순, 단위: 억, %, 2026-04-24기준

국내 주식 ETF별로 연초 이후 자금 흐름을 살펴보면, 정부의 코스닥 시장 지원책 강화 속에 코스닥150 관련 인덱스·레버리지 또는 액티브 ETF 등으로 대규모 자금이 유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란 전쟁 여파로 증시의 변동성이 커진 영향으로 일정 변동성 하에 상대적으로 성과를 추구하기 유리한 커버드콜 전략의 ETF로도 자금이 많이 유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반도체, 로봇, 방산과 같은 투자자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업종섹터 ETF로도 대규모 자금이 유입되었다. 한편, 국내 증시의 강세 속에 인버스 레버리지 ETF로도 많은 자금이 유입 된 것으로 나타나 향후 시장 상황에 따라 변화가 예상된다.

도표 50. ETF(국내 주식) 연초 이후 자금 흐름 상위 Top20

펀드명	설정일	설정액	순자산	자금 흐름	수익률	세부유형*
				YTD	1Y	
삼성KODEX코스닥150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20150930	34,711	64,196	44,272	65.63	시장대표
미래에셋TIGER반도체TOP10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20210809	25,537	98,020	33,084	297.58	업종섹터
삼성KODEX200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20021014	17,452	220,213	26,868	195.86	시장대표
삼성KODEX코스닥150레버리지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파생형]	20151216	25,930	42,507	17,995	126.82	시장대표
미래에셋TIGER코스닥150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20151111	11,426	21,810	17,499	65.13	시장대표
삼성KODEX200타겟위클리커버드콜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파생형]	20241202	22,403	45,757	14,788	153.81	전략
삼성KODEX200선물인버스2X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파생형]	20160921	620,220	10,921	11,729	-92.06	시장대표
미래에셋TIGER200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20080403	19,613	86,345	10,979	196.46	시장대표
삼성액티브KoAct코스닥액티브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20260309	9,156	9,797	10,397	-	시장대표
삼성KODEX반도체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20060627	3,442	47,465	10,334	289.85	업종섹터
미래에셋TIGER배당커버드콜액티브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20231211	5,947	11,911	7,292	146.09	전략
미래에셋TIGER코리아휴머노이드로봇산업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20260105	5,209	6,118	6,524	-	업종섹터
신한SOLAI반도체TOP2플러스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20260316	5,543	7,486	6,226	-	업종섹터
미래에셋TIGER반도체TOP10레버리지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파생형)	20240722	3,080	16,385	6,164	1,097.82	업종섹터
미래에셋TIGER현대차그룹+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20110310	3,506	7,752	5,506	136.57	전략
타임폴리오TIME코스닥액티브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20260309	5,388	4,899	5,504	-	시장대표
삼성KODEXAI반도체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20210729	7,451	24,224	4,757	283.81	업종섹터
미래에셋TIGERK방산&우주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20230724	1,990	9,977	4,650	153.83	전략
삼성KODEXAI전력핵심설비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20240708	6,038	25,834	4,532	359.79	업종섹터
한화PLUS고배당주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20120828	10,814	28,018	4,027	89.94	전략

자료 : KRX, Fn-spectrum,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 세부 유형: KRX 기준
단위: 억 원, 2026-04-24, YTD 자금 흐름 기준 정렬

해외 주식 ETF 별로의 연초 이후 자금 흐름을 살펴보면, 미국의 S&P500, 나스닥 증시를 추종하는 ETF로 자금 유입이 이어졌다. 또한 스페이스 X 상장이 기대되는 가운데 우주항공에 대한 관심 증가로 관련 ETF로도 대규모 자금이 유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배당 관련 ETF로도 자금이 꾸준히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주식 ETF와 같이 커버드콜 전략의 ETF로도 상당한 자금이 유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도표 51. ETF(해외 주식) 연초 이후 자금 흐름 상위 Top20

펀드명	설정일	설정액	순자산	자금 흐름	수익률	세부유형*
				YTD	1Y	
미래에셋TIGER미국S&P500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20200806	62,540	164,230	27,232	41.90	시장대표
삼성KODEX미국나스닥100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20210407	25,340	67,163	15,009	54.24	시장대표
삼성KODEX미국S&P500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20210407	35,940	86,262	10,479	42.04	시장대표
미래에셋TIGER미국나스닥100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20101018	5,104	90,268	9,894	54.08	시장대표
미래에셋TIGER미국배당다우존스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20230616	23,045	33,629	7,650	30.72	전략
하나1Q미국우주항공테크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20251121	4,780	6,193	5,444	-	업종섹터
삼성KODEX미국배당커버드콜액티브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파생형]	20220923	11,995	15,572	4,488	31.56	시장대표
삼성KODEX미국우주항공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20260313	3,595	4,053	3,699	-	업종섹터
한국투자ACE미국S&P500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20200804	13,600	36,097	3,531	41.89	시장대표
미래에셋TIGER미국나스닥100타겟데일리커버드콜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20240621	12,710	13,991	3,428	51.99	전략
미래에셋TIGER미국우주테크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20260410	3,070	3,545	3,182	-	업종섹터
삼성KODEX미국나스닥100데일리커버드콜OTM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파생형]	20241016	7,660	7,805	3,042	45.34	전략
삼성KODEX미국성장커버드콜액티브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파생형]	20251219	3,645	3,670	2,491	-	시장대표
한국투자ACE미국나스닥100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20201026	9,880	30,043	2,362	54.13	시장대표
한화PLUS글로벌HBM반도체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20220920	595	4,382	2,351	393.45	업종섹터
삼성액티브KoAct미국나스닥성장기업액티브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20250221	1,840	3,577	2,256	141.34	시장대표
삼성KODEX미국AI광통신네트워크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20260327	1,890	2,452	2,157	-	업종섹터
한국투자ACE미국우주테크액티브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20260410	1,350	1,514	1,365	-	업종섹터
한국투자ACE글로벌반도체TOP4Plus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20221114	1,815	12,296	1,354	218.24	업종섹터
타임폴리오TIME글로벌우주테크&방산액티브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20240422	1,730	3,859	1,288	55.38	업종섹터

자료 : KRX, Fn-spectrum,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 세부 유형: KRX 기준
단위: 억 원, 2026-04-24, YTD 자금 흐름 기준 정렬

향후 ETF 시장은 새로운 유형의 ETF 출시와 정부의 지원 등으로 국내 투자자들의 기본적인 투자 수단으로서의 위치를 더욱 공고히 할 것으로 예상됨

향후 ETF 시장은 국내 투자자들의 기본적인 투자 수단으로서의 위치를 더욱 공고히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이미 투자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투자처로 자리 잡은 데다가 새로운 유형의 ETF 출시와 정부의 규제 개선 등의 지원으로 다양한 ETF가 출시되어 투자자의 니즈를 더욱 잘 충족시켜 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최근 정부는 국내 우량주식 기초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허용함→이르면 5월 22일 출시 예정

정부는 최근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의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국내 우량주식 기초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허용했다. 이미 미국, 유럽, 홍콩의 경우 단일종목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ETF 및 레버리지 ETF 출시가 허용되어 있었던 반면, 국내에서는 '10개 종목 이상 편입', '종목당 30% 이하' 등의 ETF의 분산투자 요건으로 인해 그동안 출시가 불가능 했었다. 또한 레버리지, 인버스 레버리지, 커버드콜 전략 등 다양한 전략의 ETF가 허가되었다.

도표 52.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허용 등 제도 개선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금융감독원

보도시점 배포시 배포 2026. 4. 21.(화) 국무회의 의결 이후

국내-해외상장 ETF 간 비대칭 규제 해소를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국내 우량주식 기초 단일종목 레버리지(±2배 이내)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이하 'ETF') 등의 도입 근거를 마련 → 4.28일 공포·시행 예정

✓ 증권신고서 및 상장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5.22일부터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상품이 상장될 전망이며, 일반 ETF 대비 강화된 투자자 보호장치*도 적용할 예정

* ❶상품명에 ETF 표기 금지 및 상품 특성 반영(레버리지·인버스), ❷심화교육 신설 등

※ 실질적으로 단일종목 ETF·ETN에 대해 숙지하고 합리적인 판단 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사전진단, 핵심 퀴즈(3~4개), 투자 체크리스트 배치 등 교육방식도 개편

✓ 일반 ETF 상품 대비 손실가능성이 높은 상품인 만큼, 상품구조와 위험성을 명확히 숙지한 숙련된 투자자가 단기 투자용으로 손실 감내 한도 내에서 건전하게 투자할 것을 권고

【대통령 업무보고 과제】 국내 ETF 시장의 경쟁력 강화와 건전한 성장을 위한 제도개선

자료 : 금융위원회,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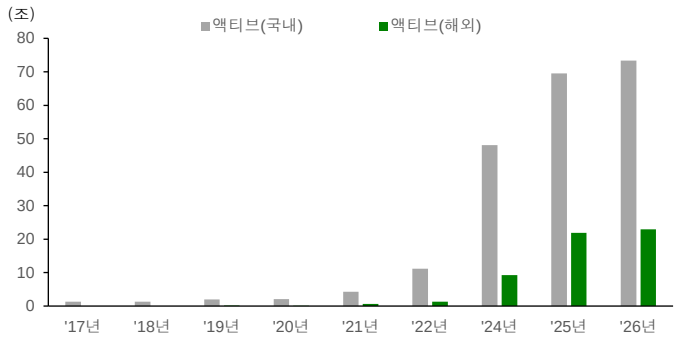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번 규정 개정으로 2026년 5월 22일 최초의 국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상장될 전망이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기초자산이 될 수 있는 종목은 일정 수준 이상의 시장 대표성과 유동성을 충족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3개월간 코스피에서 평균 시가총액 비중이 10% 이상, ▲3개월간 코스피에서 평균 거래대금 비중이 5% 이상, ▲국제 주요 신용평가 기관의 투자적격 등급 이상, ▲3개월 평균 국내 주식 선물 및 주식옵션 거래대금 비중이 파생상품 시장 내 1% 이상 등 4가지 조건을 모두 동시에 만족해야 한다. 현재 이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종목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종목에 한정된다. 비록 두 종목뿐으로 다양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상장이 당장은 불가능 하지만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도입은 투자자 입장에서 상품 선택의 폭을 넓힌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변화임에는 분명하다.

금융당국은 액티브 ETF 관련 규제 개선에 나설 것으로 알려져 → 현재 70% 이상으로 되어 있는 액티브 ETF의 기초지수 복제율 규제 개선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또한 금융당국은 액티브 ETF 관련 규제 개선에 나설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21년 거래소에서 검토 의견을 밝힌 대표적인 규제 중 하나로 현재 70% 이상으로 되어 있는 액티브 ETF의 기초지수 복제율 규제를 개선해서 보다 액티브 한 운용이 가능한 ETF 허용을 위해 상반기 중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할 전망이다. 이는 많은 국내 운용사들이 요구해왔던 사항으로 이미 주요 선진국에서는 액티브 ETF에 대해 별도의 상관계수 규제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 만약 액티브 ETF 관련 기초지수 복제율 규제가 철폐된다면 운용사 입장에서는 별도의 지수를 개발하거나 이를 추종할 필요가 줄어들어 상품 개발 비용이 낮아지게 될 것이다. 이는 후발 주자들과 중소형 운용사의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추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액티브 ETF가 다양하게 출시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최근 일부 액티브 ETF에서 유동성이 낮은 종목이나 일부 논란이 발생한 종목으로 인해 ETF 내 다른 편입 종목으로 전이되는 사례도 일부 관찰되고 있어 이에 대한 경계는 필요하다. 만약 액티브 ETF의 상관계수 요건이 완화될 경우 운용역 입장에서는 특정 이벤트 발생 시 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어 오히려 리스크 대응 측면에서는 유연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도표 53. 국내 vs 해외 액티브 ETF 순자산 총액 추이



자료 : 금융위원회,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향후에도 다양한 ETF의 출시와 함께 ETF 관련 제도적 지원이 있다면 더욱 빠르게 성장할 것

주식형 ETF, 파생형 ETF, 채권형 ETF를 중심으로 성장세를 보인 국내 ETF 시장은 이처럼 다양한 ETF 관련 제도 개선 등으로 향후에도 다양한 투자 Theme ETF, Active ETF, 단일종목 ETF, 커버드콜 등 다양한 전략을 담은 ETF 등을 중심으로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으로도 다양하고 트렌디 한 투자 아이디어를 담은 ETF가 다수 소개되며 ETF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투자자들이 관심이 높은 국내외 주식형 ETF와 채권형 ETF를 비롯해 향후 제도 개선이 기대되는 액티브 ETF의 성장이 가져올 ETF 전성시대가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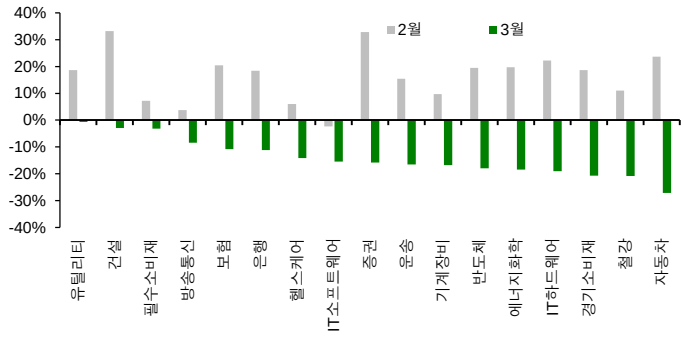
[appendix]

1. 국가별 주요 지수 등락률

지수	3월말	1M대비	3M대비	6M대비	1Y대비
코스피	5,052.46	-19.08	19.89	47.53	103.64
코스피 200	744.57	-20.23	22.87	57.07	124.00
코스닥	1,052.39	-11.77	13.71	24.99	56.41
나스닥 종합	21,590.63	-4.75	-7.11	-4.72	24.81
S&P 500	6,528.52	-5.09	-4.63	-2.39	16.33
니케이 225	51,063.72	-13.23	1.44	13.65	43.37
항셍	24,788.14	-6.92	-3.29	-7.70	7.22
홍콩 H	8,374.30	-5.48	-6.05	-12.36	-1.67
대만 가권	31,722.99	-10.42	9.53	22.86	53.28
상해종합	3,891.86	-6.51	-1.94	0.23	16.67
싱가폴 STI	4,885.45	-2.19	5.15	13.61	22.98
인도 SENSEX	71,947.55	-11.49	-15.03	-10.37	-7.06
인도네시아 IDX종합	7,048.22	-14.42	-18.49	-12.56	8.26
태국 SET	1,448.14	-5.24	14.96	13.65	25.05
베트남 호치민	1,674.49	-10.95	-6.16	0.77	28.13
독일 DAX	22,680.04	-10.30	-7.39	-5.03	2.33
영국 FTSE 100	10,176.45	-6.73	2.47	8.83	18.57
프랑스 CAC 40	7,816.94	-8.90	-4.08	-1.00	0.34
스위스 SMI	12,776.79	-8.83	-3.70	5.51	1.42
브라질 BOVESPA	187,462.00	-0.70	16.35	28.19	43.91
멕시코 IPC	68,610.72	-3.91	6.69	9.05	30.73

*단위: pt, %
**자료: Fn-guide, 신영증권리서치센터

2. KRX업종별 수익률



자료 : KRX,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2026-03-31기준

3. 주요 금리 등락률

금리	3월말	1M대비	3M대비	6M대비	1Y대비
콜금리(1일물중개거래)	2.62	1.80	-0.50	4.50	-15.60
CD유통수익률(91)	2.82	1.00	1.00	25.00	-2.00
CP(91일)	3.11	0.00	-16.00	40.00	13.00
회사채(무보증3년AA-)	4.17	52.90	69.00	114.40	102.60
회사채(무보증3년BBB-)	9.96	49.40	64.90	109.30	106.20
통화안정(364일)	2.85	22.90	33.50	53.00	22.30
통안채(2년)	3.47	56.00	63.30	95.20	83.40
금융채(산금채1년)	3.13	27.70	34.40	54.60	33.80
국채(국민주택채권1종5년)	3.99	50.50	59.20	111.40	115.70
국고1년	3.02	37.20	46.00	69.10	40.90
국고3년(국채관리기금채3년)	3.55	51.10	59.90	97.00	98.30
국고5년(국채관리기금채5년)	3.78	49.90	53.70	104.30	113.20
국고10년	3.88	43.30	49.40	92.80	110.80
국고20년	3.87	36.50	51.60	95.70	120.20
국채금리_미국국채(10년)	4.31	34.90	15.80	16.10	10.10
국채금리_영국국채(10년)	4.88	57.20	40.30	17.90	20.10
국채금리_일본국채(10년)	2.36	24.30	28.00	71.10	89.00
국채금리_독일국채(10년)	3.01	35.49	14.53	29.56	28.06

*단위: bp, %
**자료: Fn-guide, 신영증권리서치센터

4. 주요 환율 등락률(WON/각 국 통화)

통화	3월말	1M대비	3M대비	6M대비	1Y대비
미국(달러)	1,510.50	4.71	4.39	7.43	2.48
일본(100엔)	951.59	2.99	3.04	0.12	-3.23
홍콩(H.달러)	192.70	4.51	3.64	6.66	1.71
중국(위안)	219.29	4.29	5.74	11.18	8.10
싱가포르(S.달러)	1,174.89	3.00	4.39	7.80	7.07
인도(루피)	16.16	1.96	0.37	2.08	-6.32
필리핀(페소)	24.94	-0.32	1.34	3.36	-3.15
인도네시아(100루피아)	8.91	3.36	2.41	5.44	-0.11
태국(바트)	46.36	-0.15	0.94	6.99	6.87
오스트레일리아(A.달러)	1,042.55	1.56	7.99	12.10	13.28
뉴질랜드(N.달러)	867.86	0.28	4.24	6.54	3.79
EU(유로)	1,745.91	2.40	2.72	5.82	9.50
영국(파운드)	1,998.54	2.76	2.51	5.73	4.95
스위스(S.프랑)	1,890.02	0.69	3.53	7.08	13.37
러시아(루블)	18.58	-0.43	1.59	9.55	4.62
브라질(레알)	291.68	3.64	10.42	10.40	12.80

*단위: %
**자료: Fn-guide, 신영증권리서치센터

Compliance Notice

이 조사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참고가 될 수 있는 각종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이 조사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 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이 조사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이 조사자료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 할 수 없습니다.